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한국/호주 전지역 및 세계 각국 택배

-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회사
- 전통있는 최우수회사
-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 고객 만족도 100%

7개 라인 최다차량 보유 8대
02 9648 2424

0431 24 24 24 23-25 Byrne St,
070 7899 4444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Australia NO.1 Korean Community Newspaper

AUS SOLAR ENERGY GROUP **태양광**
솔라 설치!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No. 1575(호) 2024년 2월 23일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제이원 보석
J.Won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금 매입합니다.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T. 9763 1355**
Mon-Fri: 10am-6pm / Sat: 10am-3pm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지난 2월 19일(월), 시드니 북서부에 거주하는 한인 조씨 및 아내와 아들이 살해된 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 조씨의 시신이 발견된 버클링 소재, 자택 앞에서 경찰이 Police Line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처

한인 일가족 살해 사건 발생... 경찰, 용의자유 모씨 기소 A3면

K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고용법 이혼

KIM & ASSOCIATES
김성호 대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
(02) 9283 5550
KNA1805

오상원 치과
Dr. Sam Oh & Associates DENTAL CLINIC

- No Gap Fee 진료
- CDBS 와 정부바우처 진료 (어린이/틴에이지 치과진료예약)

캠시 병원 이스트우드 병원
P 02 9718 3450 / M 0411 552 987 P 02 9804 1054 / M 0466 909 560
1/8 London St Campsie NSW 2194 1/35 Railway Parade Eastwood NSW 2122
(세종병원 맞은편) (이스트우드역 맞은편, 계단 사용)

온라인 예약 | www.dentalforyou.com.au

miraе 미래종합금융/보험
Insurance Services

우량 보험사간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즈니스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 신규사업 보험 전문 상담
- Public Liability
- 상업용 건물 · 차량 · 장비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Professional Indemnity
- 생명보험 · 암보험
- 현재 가입된 보험 무료 Review

호주 전 지역
보험 진행 가능

www.miraefinance.com.au 1300 882 59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6층 603호

Hti Home Loan Finance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 파이낸스
장현철 **0430 421 115**

주거 투자 임대 최고의 요지 **분양 판매 예정**

로즈 Rhodes 최상의 건설품질! 마지막 프라임 로케이션!
평생 워터뷰 & 시티뷰, 독보적인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최고의 명품, 빌버지아 | 인스펙션
건설사 공인 전문 에이전트 | 상담문의

윤호인 0415 007 109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 NO 관리비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AUS SOLAR ENERGY GROUP
ABN: 78 138 964 100

2월 특가
할인중!

호주 유일!

15년 경력 CEC 호주정부 승인
태양광 솔라 설치 전문업체!

Aus solar Energy group 은 고객님과 약속합니다

- 10년 이상의 확실한 워런티 보증 서비스
- 호주 유일 15년 경력에 CEC정부허가 보유 업체
- Aus solar 소속 설치팀 & 전기공 사용 (하청업체 사용 X)
- Roof 지붕 워런티 보증 서비스 완벽제공

Aus solar 시공사진

Aus solar 창고

가정용 솔라 시스템

6.6KW 태양광 시스템	13.3KW 태양광 시스템
단돈 \$4,090 inc GST	단돈 \$7,390 inc GST
or \$356.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or \$631.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타업체가 CEC 정부승인 & 13년 이상 경력 업체일 시,
솔라 설치비용 타업체와 가격비팅 가능합니다!

상업용 솔라 시스템

40KW 이상 솔라시스템 무상설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Oliver Kim 에게 연락주세요 *

교민여러분, 이제 전기료 걱정 끝! 전화 상담후 계약시 깜짝선물을 제공!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Sales & Marketing Manager
Oliver.kim@aussolarenergygroup.com.au



神韻晚會 2024 SHEN YUN

공산 주의 이전의 전통 중국 문화



호주 투어 공연 |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23일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2024년 완전히 새로운 연출

GOLDCOAST
HOTA, HOME OF THE ARTS
2024년 2월 23-25일
(07) 5588 4000

BRISBANE
CONCERT HALL, QPAC
2024년 2월 26-27일
136 246

BENDIGO
ULUMBARRA THEATRE
2024년 3월 1-3일
(03) 5434 6100

CANBERRA
CANBERRA THEATRE
2024년 3월 5-6일
(07) 6275 2700

SYDNEY
CAPITOL THEATRE SYDNEY
2024년 3월 8-17일
Ticketmaster: 1300 558 878
Presenter: (02) 8988 5611

PERTH
HIS MAJESTYS THEATRE
2024년 3월 19-23일
(08) 6212 9292



SHEN YUN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인 5천 년 중국 전통 문화를 통해 다차원적 영감을 주는 공연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 중 하나인 중국 고전무용과 독특한 배경 효과, 독창적 관현악 예술을 선보이는 선원은 심오한 지혜와 신성한 아름다움의 문명으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나은 빼어남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선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 Coral Drouyn / 호주 연극평론가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우수함이 무어신지를
보여주는 공연.”

-Stage Whispers

“아주 웅대한 공연이다
매우 계몽적이고 아름다우며
음악 또한 훌륭하여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관람을 추천한다.”

-Tony Robbins / 유명 작가이자 연설가

한국어 문의 : 0459 366 887



지난 시즌
전 좌석 매진,
지금 최고의 좌석을
확보하세요!!!

ShenYun.com

Presented by Falun Dafa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한인 일가족 '비극적 삼중살인' 발생... 유력 용의자로 태권도 코치 신변 확보

피해자는 39세 조씨 및 아내와 아들... 시신은 태권도수련장-자택 앞에서 따로 발견
경찰, 자상 치료 중인 용의자 유씨 기소, 주말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심문 예정



지난 2월 19일(월), 시드니 북서부에 거주하는 한인 조씨 및 아내와 아들이 살해된 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 조씨의 시신이 발견된 버클햄 힐 소재, 자택 앞에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사진). 사진: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처



유력 용의자로 경찰이 신원을 확보한 Lion's Taekwondo 유 모 코치. 그는 현재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주말쯤 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 Facebook

시드니 북서부에 거주하는 동포 일가족 중 2명이 목이 졸리고, 다른 한 명은 칼에 찔려 끔찍하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NSW 경찰이 '삼중살인' (triple killing)으로 표현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 가족의 어린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태권도 수련장(Lion's Taekwondo) 코치 유 모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스 파라마타(North Parramatta) 산업단지 뒤에 위치한 태권도 수련장이, 지난 2월 19일(월) 40세 여성 조씨와 조씨의 7살 아들이 태권도 코치 유씨에 의해 목이 졸려 살해된 현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aster Lion'으로 알려진 유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6시30분 사이, 두 모자를 살해한 뒤 태권도 수련장 안에 시신을 숨겨 놓았다. 이날 유씨는 수련장에서 등록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후 유씨는 숨진 조씨 소유의 흰색 BMW X5 차량을 운전해 버클햄(Baulkham Hills)에 있는 조씨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조씨의 남편(39)과 대면했다.

이번 살인사건을 맡은 광역시드니 살인사건 수사대(Greater Sydney Area homicide squad)의 대니 도허티(Danny Doherty) 수사국장은 사건발생 이틀 뒤인 21일(수) 오전, 첫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정보를 통해 경찰이 추정하는 것은, 아내 조씨와 아들이 노스 파라마타(유씨의 태권도 수련장이 있는)에서 살해된 오후 6시30분 이후 유씨가 버클햄 힐스로 이동했고, 39세의 피해자 남편과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그 싸움 과정에서 남편 조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또한 가슴과 팔에 자상을 입었으며, 이후 BMW 차량을 직접 운전해 웨스트미드

병원(Westmead Hospital)으로 가 입원했다. 유씨는 의료진에게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고, 의료진은 유씨의 자상에 수상한 점을 인지,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인 20일(화) 아침, 조씨의 안부를 걱정한 친구가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조씨 부부가 8년간 거주한 왓킨스 로드(Watkins Road, Baulkham) 상의 조씨 집 앞에서 생명이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남편 조씨의 시신이 발견된 2시간쯤 후, 경찰은 유씨의 태권도 수련장에서 아내 조씨와 아들이 사망한 채 누워 있는 암울한 광경을 목격했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피아노의 명가(名家)

가스펠피아노
 www.gospelpianos.com.au

C. BECHSTEIN 벅스타인	Wm. Knabe & Co. 크나베
W. HOFFMANN W.호프만	KOHLER & CAMPBELL 컬러앤캠벨
SEILER Flügel und Pianos 자일러	KETRON BEST NATURAL SOUNDS 케트론(이태리)
Roland 로렌드	CASIO 카시오
YAMAHA 야마하	KAWAI 카와이



- Pianos
- Keyboards
- Digital Piano
- Ukulele
- Guitar
- Flute
- AMEB Grade Exam Book
- Lesson Book 교재
- Organ

가스펠 피아노사는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키보드 등을 직수입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대 새 피아노 & 중고 피아노 총판매장

CLYDE | 35-37 Parramatta Rd
PH 9724 2022

RYDE | 231-235 Blaxland Rd (Cnr Lane Cove Rd)
PH 9809 5000 일요일 오픈



사건발생 이틀 뒤인 2월 21일(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광역시드니 살인 사건 수사대(Greater Sydney Area homicide squad) 대니 도허티(Danny Doherty) 수사국장. 그는 20일 밤, 용의자 유씨를 체포했으며, 조씨 일가족 살해 혐의로 기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진: news.com.au 뉴스 영상 캡처

▶ 3면에서 이어받음

수사 책임자,
“주말쯤 유씨 심문 예정...”

도허티 수사국장 21일(수) 가진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침울한 목소리로 “이들(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며 이번 사건을 ‘끔찍한 재앙’ (cataclysmic)이라고 묘사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삼중살인의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씨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이유로 살해를 감행했는지를 확인 중” 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21일(수) 현재, 유씨는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수술을 마

쳤으며, 의식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의 발표 내용에서 ‘(유씨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부’ 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허티 국장은 “곧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주말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해 유씨의 자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추정) 태권도 수련생 학부모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당분간 태권도 코칭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허티 국장은 이어 “경찰은 아직 그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았다” 며 “우리(경찰)는 유씨가 살인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심문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남편 조씨 회사 측,
“충격과 슬픔 느낀다” 애도

한편 숨진 조씨는 아타몬(Artarmon)에 있는 건설회사 ‘Richard Crookes’ 에서 선임 견적사(senior estimator)로 일하던 회사원이었다. 조씨의 회사 동료들은 그를 “중간 간부로, 업무에 전념하는 매우 외향적인 사람” 으로 묘사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씨의 한 동료는 “현재까지 회사에서 일하며 조씨보다 더 평범하고 열성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면서 “그는 NSW 주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매우 존경받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씨에 대해

“아주 유쾌하고 친절하며 업무지식 또한 아주 높았다” 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 회사(Richard Crookes)에서 약 20년 근무해 왔으며, 그 동안 너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회사 내에서 ‘기계’ (the machine) 로 불렸다는 게 동료들의 말이다.

그런 한편, 가해 용의자인 태권도 코치 유씨는 고등학생 때 부모를 따라 호주로 이주했으며, 태권도 보조 코치로 일하다 본인의 수련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시간-장소별 사건 정리

-Lion’s Taekwondo Martial Arts / 2월 19일(월) 오후 5시30분에서 6시30분 사이, 4-세의 조씨와 7살 아들(이 태권도 수련장에 등록된)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

-버크힐 소재 조씨의 집 / 오후 6시30분에서 11시50분 사이 경찰은 라이온스 태권도 수련장 코치인 유씨가 조씨 집을 방문, 남편 조씨와 딸다툼을 벌였으며,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숨진 조씨를 경찰이 발견

-Westmead Hospital / 19일(월) 오후 11시 50분경, 태권도 코치인 유씨는 자상을 입은 채 숨진 조씨(아내)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웨스트미드 병원으로 갔고, 의료진에게는 “슈퍼마켓에서 공격을 받았다” 고 말하고 치료를 받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고객님의, 고객님에 의한, 고객님을 위한

용자 상담인이 되겠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고준서 드림 -

주택용자
- 첫 주택구입
- 투자
- 재용자

상업용 건물 용자

자동차, 장비 용자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Cash

Rate 이 2023년 11월 7일 0.25% 올려서 호주 중앙은행

Cash Rate 은 4.35% 가 되었습니다.

RBA의 이자율 변동을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info@miraclefinance.com.au 이나

전화번호 0408 815 816 으로

정확한 영문 Spelling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월 RBA 이자 변동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용자 이자율을 확인하셔서
Update된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 하시어 현금 보너스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매월 상환되는 이자금액을 절약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ustralian Credit Licence Number:388928
ACN:135 113 594

MFAA Full Member 55117



Mob. 0408 815 816 / Ph. 02 8068 4168

1085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Little's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NO WIN
NO FEE

무료상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연금보험
- #공공장소사고
- #개인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진 변호사
0408 249 334



안가희 변호사
0408 632 333

재활 및 의료비용 | 주급 손실 | 심각한 상해시 일시불 배상금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OECD 연구 보고서... 이민자 정착 일부 지역, 1인당 거의 \$1,500 경제 이득 제공



호주로 유입되는 해외 이민자들이 각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기술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국제 연구가 발표했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 사진: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해외 이민자 유입들이 단순히 호주 현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방면에서 호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분석은 오래 전부터 제시된 바 있다. 이를 보여주는 국제 연구가 최근 발표했다.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각 커뮤니티, 특히

낮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들의 임금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수의 해외 이민자들이 호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즉 주택부족, 임대주택 공실률 하락, 제반

인프라 부담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OECD가 내놓은 4개의 별도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이민자가 정착한 호주 일부 지역 거주민은 이들로 인해 거의 1,500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호주로 들어온 순이민자는 지난해 9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51만8,100명에 달했고, 이로써 호주의 전체 인구증가율은 2.4%로 반세기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17만4,000명 이상의 순이민자가 NSW 주로 들어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드니에 정착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로 유입된 이들은 15만4,000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첫 정착지로 선택한 도시는 멜번(Melbourne)이었다.

51만 명이 넘는 순이주

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호주에서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이에 따라 모든 수도의 임대주택 공실률을 기록적 수준 이하로 하락시켰고 임대료를 치솟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170만 명의 이민자가 호주로 유입된 가운데 이 기간에 임금을 받은 2,700만 명의 급여 기록을 기반으로 한 OECD 연구는 이민자가 많이 정착한 지역의 경우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같은 생산성 향상은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 정착한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OECD는 호주 이민자의 거의

60%가 고등교육을 받은 반면 호주 현지 근로자의 경우 이는 40%라며, 호주로 들어온 이민자는 다른 국가 이주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연구원들은 이번 분석에서 평균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1%포인트 높을수록 1인당 1,490달러에 해당하는, 더 높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연간 이민자 유입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현지 태생 호주인의 고용 수준이 0.53% 증가하는데, 이는 현지 출신자의 기술 수준이나 연령 그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동철 변호사

한국 형사문제 도와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황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호주로 와 기소 중이나 유예 등의 상태로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형사 분야에 전문 베테랑 한국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실 때입니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 회사/비즈니스/개인 관련 소송 등 제반 분쟁 해결
- 비즈니스 매매, 주류라이선스, 리스 등
- 주택, 상가 매매 및 부동산 개발
-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분쟁
- 유언장 작성, 유산 집행 신청, 법적 대리인(POA) 지정
- 투자, 사업, 창업, 학업, 취업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이민법 서비스

- 사업 및 투자비자, 이민/취업 고용 비자, 이민
- 점수제/주정부/지방고용주 기술비자/영주권
- 가족이민(결혼/부모/자녀 초청)
- 종교인 비자/Labour Agreement
- 재심/장관탄원/연방법원 제소
- 코로나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면제 신청

노터리 퍼블릭/서류작성 서비스

- 노터리 퍼블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정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편지, 이메일 작성 대행
- 각종 신청서류 (연금, 수당, 보험금 등) 작성 대행

0412 779 281



카카오톡 아이디 : doota21

이메일 echolawyers@outlook.com

주소 Suite 16, Level 2, 10 East Pde Eastwood NSW 2122

ECHO
LAWYERS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발렌타인 데이' 다음 날 공표... 추진되면, '재임 중 결혼한 최초의 총리' 기록될 듯



2020년 연방 노동당 대표 당시 만난 조디 헤이든(Jodie Haydon) 여사와 파트너 관계를 이어오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결혼 계획을 발표, 시간을 놀라게 했다. 사진은 캔버라에 있는 총리 관저 'The Lodge'에서의 알바니스 총리와 헤이든 여사. 사진 : Instagram / albomp(Albo는 'Albanese'와 'Labor'의 합성어로, 알바니스 총리의 애칭이다).



알바니스 총리가 지난 발렌타인 데이 저녁, 헤이든 여사에게 프로포즈했다는 캔버라 소재 이탈리아 레스토랑 'Italian & Sons' 입구의 데코레이션. 다음 날인 15일(목) 아침, 헤이든 여사는 총리의 제안에 'Yes'라고 답했고, 알바니스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둘의 결혼 계획을 짧게 발표했다. 사진 : italianandsons.com.au

이혼 상태에서 2022년 5월 제 31대 호주 최고 정치 지도자 (Prime Minister of Australia)에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발렌타인 데이 (Valentine's Day) 다음 날인 지난 2월 15일(목) 아침, 갑작스런 결혼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연방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패배한 뒤 책임을 지고 당시 당을 이끌었던 빌 쇼튼 (Bill Shorten)의 뒤를 이어 대표직에 오른 알바니스 총리는 이미 함께 지내던 파트너가 있었다. 조디 헤이든(Jodie Haydon) 여사였다. 그녀는 2022년 3월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도 알바니스 대표를 적극 도왔으며(알바니스 대표와 헤이든 여사는 2022년 연방선거를 석 달 앞둔 2월, 'The Australian Woman's Weekly'를 통해 공식 커플임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 당원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도 알바니스 대표 및 그의 아들(이혼한

전 부인 Carmel Tebbutt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Nathan Albanese)과 함께 단상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2월 15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스 총리는 전날인 발렌타인 데이에 헤이든 여사와 함께 캔버라 소재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Italian and Sons' (이곳은 호주 노동당 의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에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고, 사전에 직접 디자인한 반지를 헤이든 여사에게 주며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헤이든 여사가 'Yes'라고 답함으로써 알바니스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에 결혼식을 갖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아침, 알바니스 총리는 개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한 짧은 성명에서 "그녀가 'Yes'라고 답했으며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흥분된다. 남

은 삶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다" (She said yes. We are thrilled and excited to share this news and look forward to spending the rest of our lives together. We are so lucky to have found each other)라고 전했다.

알바니스 총리와 헤이든 여사의 결혼 예정 소식은 알바니스 내각 구성 이후 의원들이 발표한 세 번째 뉴스이다. 현 외교통상부를 담당하는 페니 웡(Penny Wong) 장관과 파트너인 소피 알루아케(Sophie Allouache), 산업과학부 에드 후식(Ed Husic) 장관과 파트너 피오나 스콧(Fiona Scott. 그녀는 현 무소속 상원의원인 David Pocock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이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 1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Sydney Institut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24년 신입생 모집



- ◆ 치료마사지(Diploma HLT52015)
- ◆ 4년제 학사 과정 (Bachelor Degree) : 침구 및 중의학
- ◆ 38년의 전통
- ◆ 호주 문교성 (고등 교육청)의 공식 인가를 받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코스

개강일 : 2024년 2월 12일

Level 5, 25 Dixon Street, Haymarket NSW 2000

E : administration@sitcm.edu.au T : (02) 9212 1968 W : www.sitcm.edu.au

ENJOY THE FESTIVAL &
FEEL THE RHYTHM OF KOREA

Sydney
Korean
Festival

www.akcai.com

2024 SYDNEY KOREAN FESTIVAL



K-TALENT

남여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지고 계신 장기자랑을 시드니 최대의 행사
최고의 무대에서 한껏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K-WORLD POP & DANCE CONTEST

K-POP 커버댄스, 보컬 참여 가능하며
진정한 K-POP Contest의 최고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무대와 상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분들은 간단한 비디오 영상을 info@akcai.com.au
으로 3월 31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때 참가자 연락처와 K-Talent / K-World
참가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톡문의 : 0430 469 757 | info@akcai.com.au

후원문의 : 0419 888 583 | info@akcai.com.au

자원봉사 : 0430 469 757 | info@akcai.com.au

후원구좌

Bendigo Bank

Australia Korea Culture & Art Inc.
BSB 633-000 ACC 162297188

DATE **SAT 20th - SUN 21st April 2024 SAT 11AM-8PM SUN 11AM-5PM**

PLACE **Tumbalong Park Darling Harbour**

HOSTED BY **AKCA 호한문화예술재단**
AUSTRALIA KOREA CULTURE & ARTS INCORPORATED

SPONSORED BY

- 주시드니 총영사관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KOCIS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re AU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Global Defence Industry
- GOSPEL PIANOS AUSTRALIA'S LEADING PIANO STORE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 International Super Queen Model Association
- 농심
- Bendigo Bank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ustralia Chapter
- NSW GOVERNMENT Multicultural NSW
- CITY OF SYDNEY

2024 SYDNEY KOREAN FESTIVAL K-TALENT K-WORLD POP & DANCE CONTEST

SAT 20th - SUN 21st April 2024
Tumbalong Park Darling Harbour

K-TALENT

Target: Anyone who breathes
No age limit
No genre restrictions
Round 1 : Video Audition (Close 31 of March)
Round 2: 20 Selected artist from Round 1
21 April live performance at Tumbalong Park

K-WORLD POP & DANCE CONTEST

Round 1 : Video Audition (Close 31 of March)
Round 2 : 20 Selected artist from Round 1
20 April live performance at Tumbalong Park
Round 3 : Final 10 Selected artist from round 2
21 April live performance for the final winner

PRIZES FOR FINAL WINNERS
announce soon

Condition

- Music length Max 10mins
- Music can be remixed
- Round1/2 50% member overlap between teams allowed
- only 2 entries per person
- Music entered in Round 1 cannot be replaced in Round 2
- The judges will be judged by experts from the audition process to the selection of the final winning team.

All entrants are kindly requested to send their videos to
info@akcai.com.au
indicating whether they are K-TALENT or K-WORLD
with name & contact details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notified via email or DM
by 8th of April.

More information on the website
All contacts via email

www.akcai.com.au
info@akcai.com.au

▶7면에서 이어받음



2020년부터 파트너 관계를 이어온 헤이든 여사는 알바니스 당시 노동당 대표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함께 했다. 사진은 2021년, 헤이든 여사와 함께 한 양로원을 방문, 거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알바니스 당시 노동당 대표. 사진 : Instagram / albomp



2022년 5월 연방선거에서 자유-국민 연립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알바니스 대표.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알바니스 대표는 파트너 헤이든 여사, 아들 네이션 알바니스(Nathan Albanese)와 함께 단상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 : The Guardian 뉴스 동영상 캡처

지난해 연방정부 내각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알바니스 총리가 매릭빌(Marrickville) 소재 자택을 떠

나 캔버라에 있는 총리 공관 'The Lodge' (연방총리 공관은 캔버라의 The Lodge 외에 시드니 북부, 키리빌리에 있는 'Kirribilli House' 가 있으며, 두 관저 중 하나를 선택해 거주한다)에 머물 때 헤이든 여사는 시드니에 거주하며 본인이 해 오던 일(NSW Public Service Association 여성 임원)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주요 업무에서는 영부인으로서 알바니스 총리와 함께 해 왔다. 헤이든 여사는 2022년 9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Abbey)에서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미국 공식 방문에서는 조 바이든 및 질 바이든(Joe and Jill Biden) 부부가 주최한 백악관 만찬 등 국제무대의 중요한 순간, 알바니스 총리 옆에 있었다.

총리와 함께 The Lodge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정기적으로 캔버라 총리 관저를 방문했고, 때론 헤이든 여사의 가족도 함께 The Lodge를 찾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휴일, The Lodge에서 알바니스 총리와 테니스를 즐기기도 했다.

현재 결혼 계획만 발표했을 뿐 결혼 일정과 장소, 초청 대상 하객,

신혼여행 장소와 시기, 나아가 총리의 결혼식이 2025년 5월로 예정된 연방 선거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은 분명하지 않다.

호주 역사에서 재임 중에 치러지는(예정) 총리의 결혼식은 미지의 영역이다. 비단 그것이 (총리라는 직책을 떠나) 사적인 일이라지만 이들의 특별한 날은 이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슈가 됐다.

■ fish and chip shop에서 The Lodge로, 조디 헤이든은 누구?

올해 45세가 되는 헤이든(Jodie Haydon) 여사는 9명의 자매를 돌보았던 할머니 클레어(Claire)와 특별한 유대를 갖고 있다. 뱅스타운(Bankstown)에서 태어난 헤이든은 교사로 일하던 부모를 따라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로 이주, 아보카(Avoca)의 할머니 집 인근에서 자랐다.

청소년 시절에는 네트볼 경기를 즐겼으며, 피시앤칩스(fish and chip shop)에서 아르바이트로 교대근무를 하거나 키크럼버 하이스쿨(Kincumber High School)이 끝난 후에는 종종 할머니 집을 들르곤 했다. 클레어 할머니는 열성적인 노동당 지지자였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연금업계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헤이든이 시드니로 이주한 후 클레어 할머니는 큰손녀가 왜 파트너를 만들지 않는지,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지를 가장 궁금해했고, 또 걱정했다.

알바니스 총리를 만나기(만날 당시에 알바니스는 연방 노동당 대표였다) 전까지 싱글로 지내온 헤이든은 총리와의 공식 파트너임을 공표한 후, 한 미디어에서 할머니의 걱정을 회상하며 “글쎄, 나는 노동당 지도자가 되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만회했다. 나는 (싱글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용서받았고, 이제는 30명 가까이 늘어난 클레어 할머니의 손주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위치가 된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다.

클레어의 손주들 가운데 헤이든이 정말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지난 발렌타인 데이, 알바니스 총리가 직접 디자인 하여 만든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한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 계획을 내놓았다. 애초 첫 대면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남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같은 SNS를 통한) 같은 방식의 결혼 계획 발표는 한편으로

감상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헤이든과 알바니스 총리가 만나게 된 첫 대면은 아주 유명하다. 2019년, 전 NSW 부총리(NSW deputy premier)였던 부인 카펠 테버트(Carmel Tebbutt)와 이혼한 알바니스는 2020년, 노동당 대표로 멜번(Melbourne)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알바니스는 “사우스 시드니 럭비리그 지지자들이 있는가?”를 물었고, “그들에게 (진짜 지지자인지)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여성이 “Up the Rabbitohs!” (호주 럭비리그 ‘사우스 시드니 팀’의 응원 구호)라고 외쳤다(알바니스 총리는 럭비를 좋아하며 토끼 문양을 심볼로 하는 사우스 시드니 럭비팀 광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 여성이 바로 조디 헤이든이었다.

노조 회의가 끝난 후 알바니스는 헤이든에게 직접 자신을 소개했고, 서로의 SNS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알바니스의 트위터에 연락을 먼저 취한 것은 헤이든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집(당시 알바니스는 Marrickville에, 헤이든은 Stanmore에 살고 있었다)에서 가까운 뉴타운(Newtown) 소재 수제 맥주 바(Young Henry's brewery)에서 맥주를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알바니스는 음악을 좋아했고, 헤이든은 ‘Grace Bros’의 음악 세션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다. 알바니스는 독립적인 미혼모 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용기 있게 자랐고, 헤이든은 9명의 손주를 키워낸 클레어 할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배려와 밝은 성격을 갖게 됐다.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관도 유사했다. 헤이든의 조부모, 부모, 외숙모, 삼촌들 모두는 ABC 방송을 시청하는 열렬한 노동당 지지자들이었고, 이들 중 8명은 공립학교 교사였다. 2022년 헤이든은 News Corp(지금은 뉴욕에 본사를 둔 Rupert Murdoch의 미디어 회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지에 관심이 있다면, 대중교통에 관심이 있다면, 지구환경-공정성-평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1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St Vincent's College
ASHFIELD

오픈데이

3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Register Now



svcashfield.syd.catholic.edu.au

PROUDLY PART OF THE COMMUNITY OF Sydney Catholic Schools



PIDAKOR CONSTRUCTION REAL ESTATE AGENT

FOR
SALE

칼링포드 최적의 입지조건!

Suites 9 835-839 Pennant Hills Road Carlingford 2118



사무실 공간: 72.5m2 | 탕비실(주방) 1, 창고, 주차장 2

부동산 용도: 변호사, 병원, 회계사, 음악, 미술학원, 부동산업, 한의원 등

페난트힐 대로변에 있어 광고효과 최고 좋은 입지적인 조건.

장기 렌트 계약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으며 매입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가능

Adam Chen 0414 879 393 | 최웅규 0499 771 841

요즘 65세 이상 2중국적에 따라서 한국에서 사시거나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피다코는 삼성 경매 연구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을 100% 보장합니다.



1. 오랫동안 한국에 못 가서 한국 내 사정을 잘 모르는 분.
2.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를 하실 줄 모르는 분
3. 한국 생활비를 위하여 안전 투자를 원하는 분

이중국적 신청에 대한 상담 무료로 하여드립니다. 투자 상담 예약하시면 2중 국적 신청 절차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피다코는 한국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인 "삼성경매 연구소"와 MOU를 맺고 호주와 한국 부동산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유일하게 건축공사와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투자개발 사업을 하는 면허업체 PIDAKOR

PIDAKOR 대표 주요경력 서울시 교육위원회 시설과 설계,건축,감독 20년 그리고 건축 시행사 대표 12년
Corporation Licence (종합 부동산 면허):10108823 연락처 : +61) 0499 771 841 / 한국 연락처 : +82) 010 6276 6733



SUITE 9 835-839 Pennant Hills Road Calingford 2118 NSW

info@pidakor.com.au | www.pidakor.com.au | 02 8897 2256

시드니 한국교육원, 2023년 HSC 한국어 성적 우수자 시상

HSC 개설 4개 한국어 과목, 한국계-비한국계 12명 학생 대상



2023년도 NSW HSC 시험, 한국어 과목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학생들. 시드니한국교육원과 NSW 한국어교사협회가 마련한 우수 성적자 시상식에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어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 시드니한국교육원 제공

시드니한국교육원(원장 권진)과 NSW 한국어교사협회(KOLTA NSW, 회장 이본진)는 지난 2월 16일(금) 시드니한국교육원에서 '2023학년도 NSW 주 대학입학시험(HSC) 한국어 과목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양 기관이 NSW 대학입학시험(HSC)에서의 한국어 과목 성적 우수 학생을 격려, 축하하고자 매년 2월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HSC의 한국어 과목은 지난 199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계 학생을 위한 2개 과목(Korean in Context, Korean and

Literature)과 △비한국계 학생을 위한 2개 과목(Korean Beginners, Korean Continuers)으로 현재 총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날 한국교육원과 KOLTA는 4개 각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각 3명(총 12명)의 학생을 시상했으며, 한국어를 선택한 동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HSC 한국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한국어 지도 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날 소감 발표에는 한국계 학생뿐 아니라 비한

국계 학생들 또한 출중한 한국어 실력으로 각자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NSW School of Languages를 졸업한 하나에설리 학생은 지난 12월, 가족들과의 한국 여행에서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기뻐하며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여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드니한국교육원 권진 원장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규과정에서 한국어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과정을 선택하거나, 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없는 경우 △

주정부 중등언어학교(SCL: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또는 △주정부 원격학교(NSL: NSW School of Languages)에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

올해 한국어 성적 우수자는 다음과 같다.

▲ 비한국계 Korean Beginners

1위 : Sammi Lau / NSW School of Languages

2위 : Hanae Ishii / NSW School of Languages

3위 : Kiran Roy / St Marys Senior High School

▲ 비한국계 Korean Continuers

1위 : Junyou Yu / NSW School of Languages

2위 : Clarice Widagdo / NSW School of Languages

3위 : Roopkotha Chaudhuri / NSW School of Languages

▲ 한국계 Korean in Context

1위 : Min Chae Kim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Chatswood Campus

2위 : Yeoeun Im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Strathfield Girls Campus

3위 : Chae Won Lee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Strathfield Girls Campus

▲ 한국계 Korean and Literature

1위 : Yubin Hwang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Strathfield Girls Campus

2위 : Taeha Oh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Strathfield Girls Campus

3위 : Daeun Song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Strathfield Girls Campu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10면에서 이어받음

전염병 대유행으로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들은 몇 달 동안 서로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TV 쇼를 즐기고, 음악을 듣는 등 많은 시간을 공유했다. 그리고 제한조치가 완화된 2020년 중반, 울루물루와프(Woolloomooloo Wharf)에서 데이트를 하다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헤이든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따스하고 다정하며 현실적인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둘의 데이트가 노출되면서 헤이든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사적인 로맨스가 매우 특이한 일(언론들이 주목

하는)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했다. 갑작스럽게 그녀의 사진이 매체에 실리고 소위 '과파라치'라는 이들의 눈길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던 것이다.

헤이든은 '모태 솔로'였지만 이제는 호주에서 가장 인정받는 정치인 중 한 명과 함께 있다. 여성주간지 'The Australian Women's Weekly'를 통해 공식 파트너임을 밝히는 인터뷰(2022년 2월)에서 헤이든은 "2021년 초 알바니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알바니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앰블린스에 올라 누워 있는 알바니스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뱀번에서의 노조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후 18개월이 안 되어 알바니스는 연방 노동당 대표로 선거에 승리하여 총리 자리(2022년 5월)에 앉았다. 극히 평범했던 헤이든의 삶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알바니스를 따라 캔버라 소재 총리 공관인 The Lodge에 함께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요 공식적인 외교 활동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맡았다.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손 키스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의 통로를 따라 걸었으며, 6

개월 후 찰스 3세 왕(King Charles III) 대관식에도 참석했다. 알바니스 총리와 함께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질 바이든(Jill Biden) 여사는 헤이든이 백악관 영빈관으로 좀더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녀에게 샌드슈즈를 선물하기도 했다. 헤이든을 호주의 퍼스트레이디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최고 정치 지도자의 아내가 되면 대중의 모든 시선을 받게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입방아에 오르게 마련이다. 특히 서로의 일(업무) 측면에서의 이해상충이 대중에게 감지된다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007년 제26대 총리가 된

케빈 러드(Kevin Rudd)의 아내 테레사 레인(Therese Rein) 여사는 이전부터 해오던 국제 고용서비스 회사의 호주 사업체(1억 7,500만 달러 규모)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헤이든 여사도 NSW 공공서비스협회(NSW Public Service Association) 여성 간부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국립 초상화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최고 후원자(이 역할은 전통적으로 총리 배우자들이 맡아 왔다), 소아암 자선 단체 'Redkite' 홍보대사 등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백세까지 호호탕탕"

65세 시니어분들께 희소식 !!

호주 연방정부 지원 <백호대학> 2024 건강/복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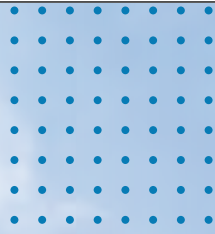
- ☑ 1년 동안 전문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 ☑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즐기며 방학때는 단체여행도 함께 합니다.
- ☑ 야외활동, 문화생활 체험, 건강스포츠, 월별/학기별 이벤트, 연말 대잔치.
- ☑ 웰빙센터에서 황토찜질방, 자연산책, 수영, 테니스, 영화감상 등 가능.
- ☑ 몸이나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픽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노인연금(pension)을 받으시거나, 재산이 많은 분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 서로 잘 아는 것은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은 함께 배웁니다.
- ☑ 즐거운 삶을 위해 건강, 친구, 일 3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 입학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 ☑ 화요일은 무료, 평일 및 토요일 취미반/특별활동은 참가비 회당 \$20.

- 2024년 프로그램 5개 클래스 (각반 정원 10명) *정원이 찰 때 까지 등록 가능
댄스반, 미술반, 모바일폰 반, 탁구반, 하이킹/등산반
- 의료지원, 건강/복지: 매주 화요일 10am~2pm
(버우드 RSL 클럽, 96 Shaftesbury Rd)
- 취미반: 월/수/목/금 10am~12noon
(이스트우드 백호대학 센터, 3월 첫주 오픈)
- 토요 특별활동: 하이킹/등산, 낚시, 탁구, 소풍, 영화관람, 전시회, 여행 등등
(장소는 시드니 시내 및 근교 여러 장소 등 그때그때 다름)

<백호대학>은 호주 비영리 복지단체 <GCMA 마이리버랜드> 소속으로 한인언론사 <한국신문>에서 주관하는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백호대학> 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자원봉사자
문의 환영

등록문의 0425 282 697 (이기태)



3BEAUTY HEALTH & WELLNESS CENTRE

3뷰티 건강증진 센터를 아시나요?

YOU BECOME HAPPIER & HEALTHIER



캔트허스트 소재 3Beauty 건강증진 센터는

오시는 분들의 과거 의료검사력, 가족력, 병력, 성별, 연령,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전문의 상담>,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운동처방사> 등이 포함된 전문 건강/의료팀이 개인별로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리는 센터입니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질환 방지를 위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3Beauty 건강증진센터는 의료서비스와 관리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차별화되고 편안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의와 비대면 진료 가능)

3Beauty 기본 프로그램

문진, 인바디 검사, 체형검사, 영양평가 프로그램 분석 등 (예약 후 내원)

- 대사 증후군 특별관리 프로그램
- 근감소증 특별관리 프로그램
- 예비 엄마와 아빠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 교통사고 후유증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장애인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치료이므로 정기적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내과전문의 검사 (혈액검사) 또는 통증감소 근육이완 치료가 병행됩니다.

3beauty Team

Exercise Physiotherapy / Dietitian / Nurse / Speech Pathology / Occupational Therapy / Acupuncture Chinese Medicine / Clinical Massage / Case management / NDIS / Aged care

3Beauty 부대시설

편백나무 황토 찜질방 / 야외 수영장 / 테니스 코트 / 골프 퍼팅 & 벙커 존 / 산책코스



NDIS 건강증진 프로그램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을 소개합니다.

본 센터의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NDIS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개인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능력 향상과 2차질병 예방을 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 당뇨, 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예방하고, 전문의료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개인별 운동처방, 식단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장애 대리인들과의 정기미팅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 장애인 개인별 체형교정을 통한 성장촉진 및 통증완화
- 개별별 맞춤 운동처방 및 식단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 의료서비스 연계 - Therapeutic Service (Allied Health) 및 GP 소개

1) 장애인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영양/식사/체중 관리를 위한 준비, 자세/영양섭취/개별식단 상담, 자가체크 노트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 전문 운동처방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지도

3) 지속적 건강/질병예방 관리

단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NDIS 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

(2) NDIS Youth (금요일 저녁 ~ 토요일 오전)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마이리버 랜드 NDIS Youth 프로그램에 참여할 장애인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하이스쿨 학생 또는 만30세 미만의 학생들

금액: NDIS Fund 에서 지불

인원: 최대 8명 (별도 남/여 숙소)

Respite / SIL / Core support / Capacity building

서비스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상담, 문의, NDIS 관련 Consulting 을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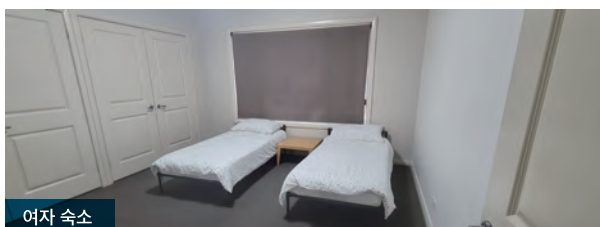
[금요일 프로그램]

5 pm	센터 도착
5 ~ 6pm	개별운동처방 관리 및 식단관리 프로그램 점검 및 진행
6 ~ 7 pm	전문요리사가 준비한 건강식단 제공
7 ~ 9pm	다양한 ACTIVITY - 영화감상, 노래방, 게임 등등
9 pm	개인위생활동 후 취침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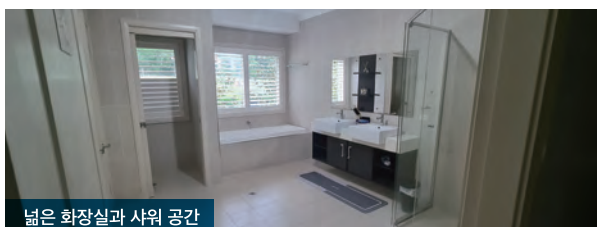
[토요일 프로그램]

8 am	아침식사 및 숙소 출발
8 am~ 1 pm	야외활동 프로그램
2 pm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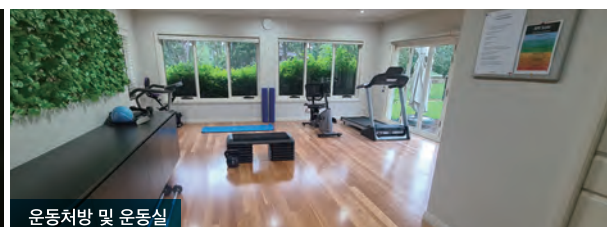
+ 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을 환영합니다. +



여자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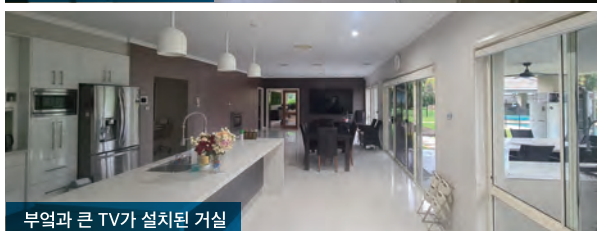
넓은 화장실과 샤워 공간



운동처방 및 운동실



남자 숙소



부엌과 큰 TV가 설치된 거실



영화 노래방

☎ 상담 문의 : 0430 903 930

house9349

주소 : 1 Hazeldean Place Kenthurst



높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OECD 연구 결과, 이민자 정착 비율이 높은 지역의 근로자 임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1.3%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의 한 레스토랑 근로자.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처

▶6면에서 이어받음

OECD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외 이민자는 호주 원주민의 지리적 이동성을 향상시켜 이들의 지역 사회 고용을 증가시킨다”며 “이민이 원주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주로 이전에 다른 지역에 고용되었거나 실업 상태였던 원주민의 지역 사회 유입에 의해 주도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이미 호주 현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하향 압력을 가하는지 여부이다. 지난 2021년, 중앙은행(BRA) 수장이었던 필립 로우(Philip Lowe) 당시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호주의 낮은 임금성장 요

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OECD는 이민자 정착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의 근로자 임금이 평균 수준의 이민자가 있는 지역 노동자에 비해 약 1.3%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민자들은 생산성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 고학력자들이 많은 지역보다 저소득 지역 근로자들의 더 높은 임금 성장을 주도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 근로자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민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며 “또한 기술이 낮은 원주민은 숙련 기술의 원주

민들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임금인상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순이민자의 도시 지역 집중을 지적했다. “호주의 각 수도가 이민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민자와 관련된 생산성 및 임금 상승 혜택을 누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지만 호주 현지 출신에 비해 취업 비율은 낮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격차는 주로 이주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이번 연구에서, 이민자 유입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 즉 국내 주택 시장 및 인프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한편 우파 성향의 정책 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Affairs’가 지난 2월 18일(일)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호주는 기록상 가장 많은 순이민자를 흡수했다. 전체 인구 대비 신규 이민자는 1.67%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연구소의 다니엘 와일드(Daniel Wild) 부소장은

재호광복장학회, 올해 사업 논의 설립 9주년 기념 및 정기 이사회서



재호광복장학회(이사장 김형)는 지난 2월 17일(토),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가스펠 피아노(대표 고동식) 회의실에서 장학회 설립 9주년 기념 및 정기 이사회를 갖고 올해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동 장학회는 올해에도, 매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주관하는 국외 대

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에 2~3명의 장학생(동포 대학생)을 선발해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동포 청소년(7~8명)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카슬 한글 배움터’ 지원사업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재호광복장학회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이민자가 호주로 입국했지만 국내 인력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주택 및 인프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은 우리 국가의 사회구조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적절한 계획을 세

우지 않으면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주거지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물론 생활비 증가, 교육, 건강 및 복지 시스템에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J.won Jewellery

제이원 보석

www.jwondiamond.com.au

9763 135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플라자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Open Hour Mon-Fri 10pm~6pm
Sat 10am~3pm

Property & BUSINESS

FIELD & URBANITE
집 사기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Jenny 0403 316 467



23 FEBRUARY 2024 1575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전년도 12월 분기 'Domain' 데이터, Tempe-Arncliffe 등 시드니 중간가격 못미쳐
 Eastlakes-Canterbury-Rushcutters Bay-Hillsdale, 유닛 중간가격 70만 달러 이하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이 지난 12월 분기 주택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드니 이너웨스트 및 이너사우스 지역(region)지역에서는 시드니 중간가격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서브러브(suburb)들이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경매 현장. 사진: Tom Panos Real Estate 사의 경매 동영상 캡처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시드니 도심 인근(inner Sydney)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이들은 이너웨스트(inner west) 및 이너사우스(inner south)의 일부 교외지역(suburb)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드니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교외에서 구입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 (Domain)이 집계한 지난 12월 분기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교외지역은 중간가격 155만 달러를 기록한 템페(Tempe)로, 광역시드니의 기록적인 중간가격(16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쳤다. 템페에 이어 안클리프(Arncliffe) 157만6,000달러, 세인트

피터스 160만 달러, 보타니(Botany)가 152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도메인'이 지난해 마지막 분기 주택가격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 데이터는 이달 셋째 주, "시드니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30~40대 인구가 도시를 이탈하는 가운데 '손주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밀도의 주거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NSW 생산성 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의 경고에 이어 나온 것이다.

높은 가격의 단독주택을 피해 유닛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중간가격 64만5,000달러의 이스트레이크스(Eastlakes)나 캔터베리(Canterbury, 66만9,000달러), 힐스데일(Hillsdale, 68만 달러), 스튜디오 또는 1개 침실 아파트가 많은 러시컷터스 베이(Rushcutters Bay, 70만 달러), 안클리프(Arncliffe, 71만 달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교외

지역은 시드니 유닛 중간가격인 79만6,000달러보다 낮은 곳들이며, 브론테(Bronte, 580만 달러), 노스브릿지(Northbridge, 465만 달러), 랜드윅(Randwick, 328만 달러), 채스우드(Chatswood, 318만 달러), 글리브(Glebe, 271만 달러)의 중간가격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도메인' 사 선임연구원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구매자 수요가 판매용 주택 공급을 앞지르면서 시드니는 지난해 강한 가격 반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파월 박사는 "한때 먼 외곽지역이 신규 주택 구입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예비 구매자들이 다시 도심 인근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신규 이민자들이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부족의 과급 효과는 아마도 첫 주택구입자들의 구매 결정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녀에 따르면 토지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이 일반적으로 CBD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기에 도심 인근의 경우 시드니 전체 중간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파월 박사는 "반면 아파트는 가장 저렴한 단독주택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NSW 생산성위원회의 지적처럼 "적합한 위치(대중교통이나 도로망 등)에 더 많은 중-고밀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택구입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것이 특히 시드니에서 토지구획 변경 논의가 훨씬 많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교외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NSW 주 정부의 개발계획에 일부 시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점을 지적한 것이다.

NSW 생산성위원회 피터 아흐테르스트라트(Peter Achterstraat) 위원장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최하위 소득 가구에 비해 시드니 CBD 반경 5km 이내 거주하는 고소득 가구는 거의 두 배나 많다. 또 2019-20년 최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3분의 1을 주거비에 지출했다. 이는 최상위 부유층 가구의 3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드니에서는 일반적 임차인이 연간 소득의 거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데 비해 멜번의 이 비율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세인트조지 은행(St George Bank) 베사 데다(Besa Deda) 선임연구원은 주택구입 경제성 저하가 세대간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젊은층의 경우(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부모의 지원(bank of mum and dad)에 의존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데다 연구원은 호주 주

택가격이 올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입 경제성 제약, 판매용 주택 증가, 높아지는 실업률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녀는 "여전히 판매용 주택이 부족해 가격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적은 주택 문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 한편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구매자 심리를 높일 수 있어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회사 'Stone Real Estate Rockdale'의 샘 아바스(Sam Abbas) 에이전트는 "CBD에서 약 9km 거리에 있는 안클리프는, 이너웨스트나 시드니 동부(eastern suburbs), 노스쇼어(north shore)의 교외지역에 비해 가격이 크게 저렴해 예비구매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놀랍게도 지난 18개월 사이 다른 지역(region)의 많은 구매자가 찾아왔다"면서 "가격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의 주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시드니 도심 접근성 및 제반 편의시설로 인해 특히 젊은 커플들이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 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더 사우스 지역의 안클리프(Arncliffe)는, 단독주택은 물론 유닛가격 또한 아직 저렴한 편이며 서 최근 수년 사이,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젊은 커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안클리프에 건설된 신규 아파트 블록. 사진 : Stone Real Estate Rockdale

▶ 17면에서 이어받음

/ - / 6.1km

Botany : \$1,625,000 / -4.4% / 8.9km

■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구입 경제성 상위 교외지역 (Suburb : 중간가격 / 연간 상승률 / CBD까지의 거리)

▲ Houses

Tempe : \$1,550,000 / 3.0% / 7.6km

Arncliffe : \$1,575,950 / 12.6% / 9.7km

St Peters : \$1,600,000

Newtown : \$1,725,400 / 3.6% / 4.3km

Erskineville : \$1,760,000 / 11.7% / 4.3km

Mascot : \$1,800,000 / -5.3% / 8.4km

Redfern : \$1,801,000 / 5.9% / 2.7km

Camperdown : \$1,842,500 / 11.3% / 3.4km

\$1,842,500 / 11.3% / 3.4km

Leichhardt : \$1,855,000 / 7.1% / 5.3km

Earlwood : \$1,894,000 / 8.2% / 9.8km

Marrickville : \$1,929,500 / 6.9% / 6.9km

Ashfield : \$2,000,000 / 14.6% / 8.0km

Alexandria : \$2,030,000 / 10.3% / 4.8km

Darlinghurst : \$2,032,500 / -8.0% / 1.4km

Petersham : \$2,032,750 / 8.4% / 5.8km

Rosebery : \$2,050,000 / - / 5.6km

Annandale : \$2,075,000 / 5.1% / 3.7km

Dulwich Hill : \$2,100,000 / 13.8% / 7.5km

Lilyfield : \$2,105,000 / -4.8% / 4.5km

▲ Units

Eastlakes : \$645,000 / - / 6.9km

Canterbury : \$669,000 / 2.9% / 9.9km

Hillsdale : \$680,000 / 3.0% / 9.5km

Rushcutters Bay : \$700,000 / -12.7% / 1.8km

Arncliffe : \$710,000 / 0.5% / 9.7km

Newtown : \$727,500 / 2.5% / 4.3km

Gladesville : \$727,500 / -9.0% / 8.8km

Chippendale : \$758,000 / 1.1% / 2.1km

Ashfield : \$762,500 / 5.9% / 8.0km

Wolli Creek : \$765,000 / 2.3% / 8.7km

Greenwich : \$769,100 / - / 4.9km

Stanmore : \$773,000 / -3.4% / 4.8km

Botany : \$787,500 / -6.0% / 8.9km

Petersham : \$800,000 / - / 5.8km

Leichhardt : \$812,000 / -3.8% / 5.3km

Lane Cove North : \$815,000 / 2.5% / 8.3km

Marrickville : \$820,000 / 11.6% / 6.9km

Dulwich Hill : \$825,000 / 0.6% / 7.5km

Lane Cove : \$835,000 / -3.9% / 6.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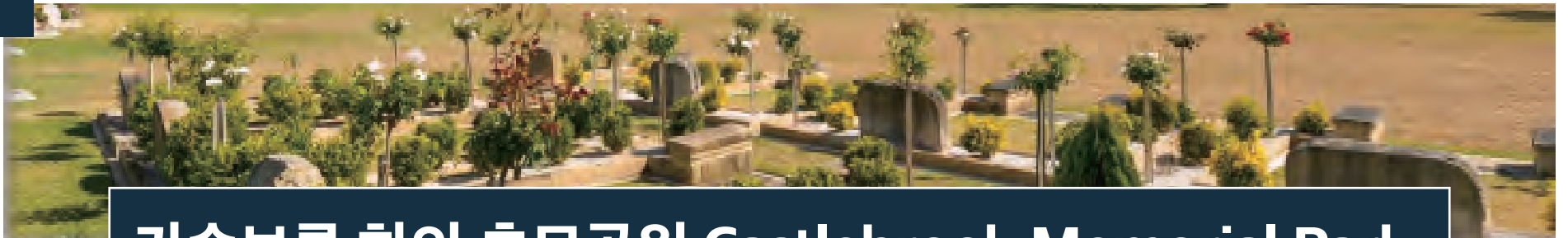
Ultimo : \$850,000 / 9.0% / 1.7km

- '연간 상승률' 은 2022년 및 2023년도, 최소 50채 이상의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교외지면에 대해서만 집계한 것임.

Source: Domain House Price Report, December quarter 2023.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구입 후 관리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PROMOTION

3월 말까지! 신년 특별 프로모션
1개 \$3500 | 2개 \$3000/Each

가족 화장묘 (2인, 4인 가능)
from \$37,000 / 카슬브룩

수목장 2인 전망 좋은 자리
\$12,000

가족묘 4인자리
\$74,500

일반 매장 자리 (위 아래 2사람 사용)
\$10,210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 20프로 디파짓에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가능

상담 문의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카슬브룩 (라우즈힐역 맞은편)
Castlebrook

블랙타운
Blacktown

채스우드
Chatswood

리버풀
Liverpool



PROJECT MARKETING
HOUSE AND LAND PACKAGE
SALES AND AUCTION
PROPERTY MANAGEMENT

Where Dreams
Come Home

02 9884 7811
503, 7 Railway st, Chatswood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고민 중 이십니까? 제니에게 연락주세요! 0403 316 467

22/40-50 Union Rd Penrith NSW 2750



- 북층으로 이루어진 펜리스 중심가 아파트
- 역과 쇼핑센터는 물론 공항과 학교가 근접해 있어 무척 편리
- 관리비가 싸서 투자하거나 거주하기에 적합

Price : \$569,000 - \$599,000

Junction 53 | Warehouse units & Self storages
Rhode St, Hillsd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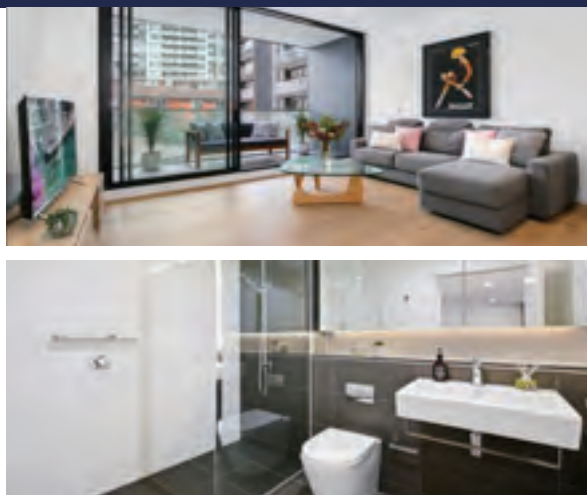


- 공항과 시티에 근접해 있어서 편리
-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기에 유용하게 선택 가능

Price : \$304,000~

209/30 Anderson St, Chatswood

🛏 1 🚿 1 🚗 -



- 채스우드의 최종심부에 위치
- 엄청난 규모의 visitor parking
- 발코니 앞에 공원 조성
- 지하에 따로 저장 가능한 스토리지

323/24-32 Koorine St,
Ermington

🛏 1 🚿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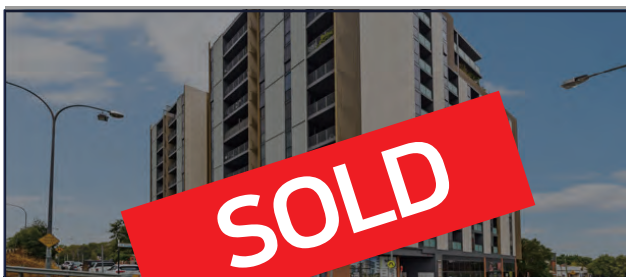


- Water Front, 공원, 산책코스로 이어지는 고급 힐링 주거 공간
- Total 129m2, internal 88m2로 2bed 보다 더 큰 공간
- 2개의 주차공간이 있어 2대 차를 보유한 커플과 가족에게 최상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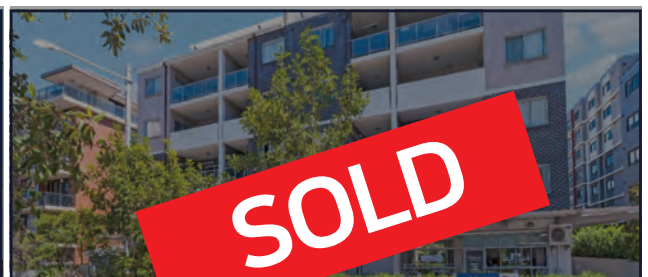
1106/... Blackyard Blvd, Lidcombe 2141
🛏 3 🚿 2 🚗 1 (3/2/1)

- 올림픽 락에 위치한 방 3개의 깔끔한 아파트
- 공원과 기차역, 버스정류장과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
-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공원처럼 꾸며진 바비큐 공간



412/18... Way St, Lidcombe NSW 2141
🛏 2 🚿 2 🚗 1

- 거의 새 것같은 햇살이 가득한 북향의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
- 올림픽 락과 골프장,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근접거리에 있어 렌트가 잘 나가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 한인들의 중심지인 리드컴에서도 중심가인 곳에 위치



2/2... St, Ryde NSW 2112
🛏 1 🚿 1 🚗 1

- 역과 학교, 강가와 상점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꿈의 터전
- 79 sm2의 사이즈가 큰 방 1개와 2nd room 사이즈의 스테디, 널찍한 발코니
- 첫주택구매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렌트가 잘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Jenny Cho

Licenced Agent/LREA 20134299

Mob: 0403 316 467

Email: jenny.fieldandurbanite@gmail.com

FIELD & URBANITE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사립학교 선택 많다’... 지난 5년간 공립학교 등록, 연속 감소



최근 통계청(ABS) 데이터에 따르면 NSW 주 공립학교 등록 학생 비율이 5년 연속 줄어 2023년에는 전체 학생 중 62.9%에 머물렀다. 사진 : ABC 방송 'Courtney Facts' 프로그램 방송화면 캡처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재정 부담, 여기에다 올 들어 사립학교들이 연간 학비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NSW 주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사립학교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 나온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NSW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비율이 5년 연속 감소, 2023년도에는 62.9%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보고된 공립학교 재학생 비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NSW 공립학교 등록 감소는 지난 10여년 사이, 시드니 북서부 및 남서부(north- and south-west) 인구성장 지역에 새로운 공립학교 설립이 미진한 가운데 저렴한 학비의 사립학교들이 속속 들어선 것이 부분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ABS)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이는 NSW 외 대부분의 주 및 테러토리아에서도 유사한 추세이다.

2023년, NSW 주에는 78만5,847명의 학생이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가톨릭 재단 학교 26만 7,253명, 사립학교에는 19만5,356명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 사립 및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중등학교(secondary) 학생은 절반에 육박하는 43% 비율이었다.

시드니대학교 교육 연구원인 헬

렌 프록터(Helen Proctor) 박사는 ‘교사 부족’ 등 현재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록터 박사는 “장기적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편파가 있어 왔고 실제로 이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았다”며 “공립학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인데, 위기와 자원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립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 교육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NSW 사립학교 협의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of NSW, AISNSW)의 별도 스냅샷을 보면, 6만5,000명의 학생, 즉 사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28%는 연간 2만 달러 넘는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한 사립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가운데 6만 명, 즉 4분이 1은 연간 5,000달러 미만의 학비를 내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또 다른 7만 2,000명은 연간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학비를 부과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보대출(mortgage)를 갖고 있는 가계의 월 상환액은 (높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한 달 2,000달러 이상 늘어났다. 2022년, National Australia Bank(NAB)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1명은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학생의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NSW 가톨릭학교 협의회(Catholic Schools NSW)의 델러스 맥키너니(Dallas McInerney) 최고 경영자는 2013년 이후 학교 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지금은 현재자매가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할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학비는 3천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합리적인 학비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양질을 교육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며, 실제로 자녀가 가톨릭 학교에서 잘 성장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기에 큰 신뢰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맥키너니 CEO는 “우리는 높은 취업 전망, 추가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물론 바람직한 품성의 시민을 양성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SNSW의 마저리 에반스(Margery Evans) 최고경영자는 사립학교 등록학생 증가는 대부분 연간 학비 1만 달러 미만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개는 시드니 북서부 및 남서부 인구성장 지역의 신설 사립학교에서 학생 증가가 발생했으며 또한 NSW 주 먼 북부, 트워드헤드(Tweed Heads)를 비롯한 일부 지방 지역 사립학교의 학생 증가도 확인됐다”는 그녀는 “이들 학교는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 있는 캠퍼스이며, 저렴한 학비로 모기지 부담을 안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NSW 교육부 프루 카(Prue Car)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NSW 공립학교 학생 비율이 크게 줄었음을 밝히면서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가 공립학교 교사 부족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2만4,000명의 학생이 공립학교를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NSW 노동당 정부는 “공립학교 교직원에 투자하고 NSW 주 공립학교가 직면한 만성적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NSW 학교별 등록 학생 (연도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학생-명 / 학교별 등록 비율)

▲ 공립학교
2014 : 391,857 / 371,841 / 763,698 / 65.4%
2015 : 396,203 / 375,775 / 771,978 / 65.3%
2016 : 400,548 / 380,052 / 780,600 / 65.4%
2017 : 406,006 / 385,034 / 791,040 / 65.5%

2018 : 410,201 / 387,821 / 798,022 / 65.5%
2019 : 414,676 / 390,997 / 805,673 / 65.4%
2020 : 417,665 / 392,412 / 810,077 / 65.3%
2021 : 414,292 / 387,891 / 802,182 / 64.5%
2022 : 409,063 / 381,786 / 790,849 / 63.7%
2023 : 407,285 / 378,563 / 785,847 / 62.9%

▲ 가톨릭 학교

2014 : 128,148 / 125,834 / 253,982 / 21.7%
2015 : 129,043 / 126,582 / 255,625 / 21.6%
2016 : 128,941 / 127,062 / 256,003 / 21.4%
2017 : 129,014 / 126,863 / 255,876 / 21.2%
2018 : 128,020 / 126,893 / 254,913 / 20.9%
2019 : 128,110 / 127,304 / 255,414 / 20.7%
2020 : 128,628 / 128,430 / 257,059 / 20.7%
2021 : 129,839 / 129,851 / 259,690 / 20.9%
2022 : 131,290 / 131,571 / 262,861 / 21.2%
2023 : 133,328 / 133,924 / 267,253 / 21.4%

▲ 사립학교

2014 : 77,185 / 73,456 / 150,641 / 12.9%
2015 : 78,772 / 75,230 / 154,002 / 13%
2016 : 80,553 / 77,032 / 157,585 / 13.2%
2017 : 82,460 / 79,094 / 161,554 / 13.4%
2018 : 84,228 / 81,529 / 165,757 / 13.6%
2019 : 86,197 / 84,380 / 170,577 / 13.8%
2020 : 87,673 / 86,423 / 174,097 / 14%
2021 : 90,877 / 90,401 / 181,277 / 14.6%
2022 : 93,801 / 94,054 / 187,854 / 15.1%
2023 : 97,169 / 98,187 / 195,356 / 15.6%

Source: ABS data

\$ ABC SEAMLESS \$

거터(Gutter, 지붕 홈통) 전문 할인점
거터에 관한 모든 것, 저희에게 맡기세요!!!

20%
할인!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
월등한 가격 경쟁력

지붕 홈통(Roof gutter), 처마(Leafguard),
금속제 지붕(Metal Roofs) 및 지붕 보수

무료견적 TEL: 02 9748 3022

WEB: www.abcseamless.com.au | E-MAIL: abc@abcseamless.com.au

김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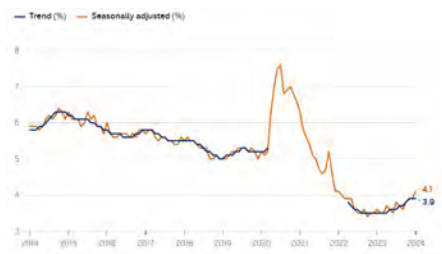
herald@koreanherald.com.au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통계청 월간 데이터... 500개 일자리 생성에 그쳐, 불안전 고용률도 6.6%로



호주 실업률이 지난 2년여 사이, 수십 년 만에 3.4%라는 최저 수준에서 올해 1월 4.1%로 높아졌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월의 계절적 특성 때문이라 분석하기도 하지만 올해 실업률 수치는 점차 높아져 4.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한 카페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사진: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0년 사이 실업률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지난 2년여 3%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여 오던 호주 노동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양상이다. 통계청(ABS)이 이달 셋째 주 내놓은 월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1월) 일자리 생성은 약 500개에 그쳐 실업률은 4.1%까지 상승했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비요른 자비스(jorn Jarvis) 국장은 “실업률이 4%를 넘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2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간주되는

이들은 올 1월 2만2,000명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2.5% 감소해 2023년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전반적인 근무시간 둔화 양상을 이어갔다. 불안전 고용률도 6.6%로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 수치는 약세를 보였다.

“노동시장, 냉각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달 실업률 수치를 대해 “중앙은행(RBA)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도 실업률 상승에 대해 “RBA의 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 (inevitable consequence)”라며 “호주 가계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압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둔화 양상이 지금 우리(호주)가 보고 있는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의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국내경제 책임 연구원은 “실업률이 지난 5개월 동안 ‘상당히 빠르게’ (quite sharply) 상승했다”며 “RBA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에어드 연구원은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보낸 정기 경제 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실업률이 3.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할 때 5개월 만에 0.5%포인트가 높아진 것은 ‘심각하고 다소 우려스러운’ (significant and somewhat concerning) 것”이라며 “최근 실업률 증가 속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정책 입안자들을 걱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 국장은 실업률 조사가 실시될 당시 많은 호주인들이 휴가 중이었기에 1월 수치에는 몇 가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 “1월 수치에서 볼 수 있는 실업률 악화 중 일부에 대한 잠재적 상쇄는 예전보다 1월 말, 새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이 더 많은 포스트 COVID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자가 늘어났지만 앞으로 4주 이내 새로이 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BA의 에어드 연구원은 “이것이, 2월 실업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현재 고용에서 볼 수 있는 약점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월 3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재 수준은 그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며 “

실업률은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RBA, 인내심 가질 것...

이런 가운데 시티은행(Citibank)의 조시 윌리엄스(Josh Williamson)와 파라즈 시에드(Faraz Syed) 경제연구원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2월 고용은 ‘확고하게 반등’ (solid bounce back)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음달 공개될 2월 수치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4.1%에서 약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올해 말 RBA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에 맞춰 4.3%까지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RBA는 12월과 1월 노동시장 조사의 특이한 방식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느슨해진다고 판단하기 전, 시장 건전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수치를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티은행 경제학자들은 올 1월, 정규직 고용이 1만1,000명 증가한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는 1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용을 1만1,000명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지만 이것이 지난달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HOME LOAN CENTRE

LoanCare Homeloans



M-326343

이차율 비교!

정확한 조언!

빠른 승인!

필요할 때
힘이되는
융자전문가

01 주택융자 up to 95%

03 Private Lending
(2nd Mortgage도 가능)
\$50,000~\$3M까지

05 Lo Doc (No Tax Return)
up to \$2.5M

02 자동차 & 장비
어디서 사든 가능

04 상업건물 up to 75%
(Lo Doc 70%)

06 Business & Construction Loan

M. 0421 578 822 E. linaleeau@gmail.com
8A, 38 Rowe St, Eastwood DIRECTOR: Lina(Sang Rye) LEE

Best choice for entertainment

iNSIDE Magazine

23 February 2024

한인 일가족 '비극적 삼중살인' 발생... A3면

OECD 연구 보고서...이민자 정착 일부 지역, 1인당 거의... A6면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알바니스 총리-파트너 조디 헤이든 여사 결혼계획 발표 계기, 전 영부인들 역할 조명
마가렛 휘틀럼 여사, '오늘날 최고 정치 지도자의 파트너 역할을 정의했다' 평가 받아



2022년 2월, 한 미디어(The Australian Woman's Weekly)를 통해 커플임을 밝힌 알바니스 총리(당시 노동당 대표)와 조디 헤이든(Jodie Heydon). 지난 2월 15일(목), 알바니스 총리는 헤이든 여사와의 깜작 결혼 계획을 발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진 : 유튜브 동영상 캡처

2022년 5월, 제31대 호주 총리에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야당 시절인 지난 2019년, 부인 카멜 테부트(Carmel Tebbutt. 전 NSW 주 부총리 역임)씨와 이혼했으며, 이듬해 조디 헤이든(Jodie Heydon) 여사를 만난 뒤 연방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파트너 관계임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알바니스 총리가 캔버라 소재 총리 공관인 'The Lodge' (연방총리의 관저는 캔버라의 The Lodge 외에 시드니 북부, 키리빌리에 있는 'Kirribilli House' 가 있으며, 두 관저 중 하나를 선택해 거주한다)에 거주하기로 했을 때, 헤이든 여사는 시드니 소재 자택에서 지내왔지만, 정기적으로 The Lodge를 방문하는 등 파트너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4일, 총리는 캔버라에 있는 한 레

스토랑에서 헤이든 여사와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를 함께 보내며 프로포즈를 했고, 다음 날 헤이든 여사가 'Yes' 라고 답을 한 뒤 알바니스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결혼 계획을 발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직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날짜와 장소, 초청 대상 등)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헤이든 여사는 (결혼을 전제로) 영부인으로서 공식 역할을 맡아야 한다(헤이든 여사는 알바니스 총리 취임 이후 주요 공식 외교 일정 등에서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호주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의 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총리의 결혼 계획이 공표(2월 15일)된 다음 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논평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총리 배우자들의 활동을 조명, 눈길을 끌었다.

'최고의 총리 파트너' 평가, 마가렛 휘틀럼 여사의 고민

1972년 노동당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인 마가렛(Margaret)은 자신의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국가 정치 지도자의 배우자로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그것이였다.

당시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cage) 안에 머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 좋을 일을 할 수 있다면 분명, 나는 노력할 것이다' (What am I to do? Stay in a cage - wide open to view, of course - and say nothing? That's not on, but if I can do some good I'll certainly try)라고.

이전 호주 총리의 모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전과 이후에도 휘틀럼 여사는 최고 정치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디 헤이든 여사는 현 총리의 새 부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때로는 과열된 대중의 시선 아래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 앤서니 알바니스가 총리로 재임한 거의 2년 동안 그의 파트너로, 그녀는 캔버라 소재 총리 관저 'The Lodge'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어왔고, 대중들 또한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마가렛 휘틀럼 여사와 같은 전임자들에게 있어 The Lodge에 들어가는 일은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이기도 했다.

▶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22면에서 이어받음

남편(고프 휘틀럼)이 연방 선거에서 승리한 후 마가렛 여사는 유명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저메인 그리어(Germaine Greer)씨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바보가 된다. 대신 말을 많이 하면, 그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너무 많은 말을 듣는다” (If you say nothing you’re just dumb. If you talk, you’re too talkative)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미디어와의 만남은 여성 언론인 그룹과의 인터뷰였으며, 이때 휘틀럼 여사는 낙태 개혁, 피임에 대한 조언, 마리아나 합법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여성 권리와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지지 선언했다.

1973년 당시, 그녀의 발언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호주 미디어 기자 중 한 명은 휘틀럼 여사와 이전 총리 부인들의 사례를 비교했다.

기자는 ‘데임 패티 멘지스(Dame Pattie Menzies. 제12대 총리 Sir Robert Gordon Menzies의 부인. ‘Dame’는 남성에게 수여하는 명예 호칭인 ‘Sir’에 해당)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자라(Dame Zara Holt. 제17대 총리 Harold Edward Holt의 부인)는 많은 말을 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베티나 고튼(Bettina Gorton. 제19대 총리 Sir John Grey Gorton의 부인)은 지적으로 밝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적이었고, 소냐 맥마혼(Sonia McMahon. 제20대 총리 Sir William McMahon의 부인)은 관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썼다. 그리고 마가렛 휘틀럼 여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with guns blazing) The Lodge의 첫 여성 거주자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촌평은 휘틀럼 여사 이전의 총리 배우자들에게 약간 불공평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패티 멘지스 여사는 여성해방 이전 시대 사람이었다. 남편인 밥 멘지스(Robert Gordon Menzies)는 귀족인 척했지만 아내인 패티의 계속된 지원 없이는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

**‘튀는’ 행동으로
전 세계인 주목받기도**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전 세계를 여행했던 자라 홀트 여사는 헤롤드 홀트의 정치 경력에 귀중한 인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보수적인 멘지스(Robert Gordon Menzies 총리) 시대를 일소하려 했다.

헤롤드 홀트 총리와 함께 The Lodge에 들어간 그녀는 이 관저의 모든 장식을 교체했고, 에메랄드 그린 카펫을 새로 깔았으며, 어둡고 옅은 산회색 패넬을 모두 긁어낸 다음 광택이 나는 흰색을 칠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지낸 것은, 남편이 빅토리아주 모닝턴 페닌슐라에 있는 포트시(Portsea, Mornington Peninsula, Victoria)의 체비엇 비치(Cheviot Beach)에서 수영을 즐기다 실종(홀트 총리의 실종은 호주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 있다)되기까지 2년 남짓 했다.

베티나 고튼(Bettina Gorton)은 남편인 존

고튼(John Gorton) 총리가 캔버라 주재 미국 대사관의 심야 파티에 젊은 저널리스트 제럴딘 윌시(Geraldine Willesee) 기자를 데리고 간 일이 알려진 후, 무분별한 총리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일자 남편을 보호하는 일에서 냉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남편인 총리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만 큰 편견이 없었고, 남편을 고발한 자유당 백 벤처(당내 주요 요직을 받지 않은 의원) 에드워드 세인트 존(Edward St John)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를 써 미디어에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시에서 세인트 존 의원을 ‘뱀의 혀를 가진 의원 / 수척한 뱀, 욕망에 불타는 눈 / 광란으로 날뛰는 독이 든 언어’ (The Member with the Serpent’s tongue/The haggard cheek, the hungry eye/The poisoned words that wildly fly)로 묘사했다. 이후 세인트 존 의원은 자유당 당적을 잃었다.

소냐 맥마혼 여사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보다 25살 연상인 남편 빌리 맥마혼(William McMahon)은 대중들로부터 가장 독특하고 신뢰도가 낮은 지도자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마혼 여사가 1971년 남편과 함께 미국을 방문, 백악관 리셉션에 양쪽 허벅지까지 파인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을 때 미국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및 남편인 빌리 맥마혼과 함께 나온 그녀의 사진은 전 세계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표면적으로는 진지한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까지 (언론에) 등장시켰다. 캔버라에서도 그녀의 드레스 이야기는 며칠 동안 계속됐다.

그런 일들을 지켜보던 마가렛 휘틀럼 여사가, 1973년 총리 자리에 오른 남편(Gough Whitlam)을 위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휘틀럼 여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 외에도 각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썼고, 라디오 대담 쇼에도 참여했으며 예술분야를 비롯해 수많은 자선단체,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남편의 외국 방문에서는 남편 옆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휘틀럼 전 총리 부부는 큰 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총리가 194cm, 영부인은 188cm였다. 이 때문에 총리로 취임한 후, 캔버라 관저(The Lodge)에는 특별 제작한 초대형 침대를 설치해야 했다. 그리고 3년 후, The Lodge 거주자가 193cm의 말콤 프레이저(Malcolm Fraser) 총리와 영부인 태미 프레이저(Tamie Fraser)로 바뀌었을 때, 이 특별 제작 침대는 아주 유용하다는 게 입증됐다.

**정치인 남편과 별개로 일부는
성공적 커리어 이어가**

공교롭게도 태미 프레이저 여사는 종종 ‘나무가 되어버리는 남편’ (wooden husband. 질병으로 누워서 쉬어야 하는)에게 있어 부인이자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1975년 남편이 병으로 침대 신세를 져야 했을 때, 남편을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녀의 노력은 너무도 성공적이었고, 자유당 선거 전략가들은 그녀가 1977년, 1980년, 1983 연방선거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총리와 부인 마가렛 휘틀럼(Margaret Whitlam) 여사. 휘틀럼 여사는 남편의 총리 재임 당시 각기 사회·여성 인권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오늘날 최고 정치 지도자의 파트너 역할을 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1974년 ‘The Lodge’에서 촬영된 휘틀럼 총리 부부. 사진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보수적 성향의 멘지스(Robert Gordon Menzies.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와 부인 패티 멘지스(Pattie Menzies. 앞줄 가운데) 여사. 멘지스 총리와 함께 The Lodge에서 생활했던 패티 멘지스 여사는 정치와 관련해 거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캠페인에서 자유당을 위한 중요 역할을 맡도록 보장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어찌 보면 최고 정치 지도자의 배우자 스타일이었다. 자라 홀트 여사가 The Lodge를 거칠게 장식한 지 10년 후, 프레이저 여사는 이곳 관저의 응접실을 고전적인 크림색 페인트 벽으로 되돌려놓았고 바닥의 녹색 카펫을 흰색의 ‘버버 카펫’ (Berber carpet. 모로코 베르베르족의 양탄자를 모방한 카펫으로서, 와이어 카펫 직기 또는 후트 리그 방식으로 만든 카펫)으로 교체했다.

그런 한편, 마가렛 휘틀럼 여사는 미디어 기고, 출연료 등으로 연간 3만6,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기사가 나갔을 때, 대중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경이로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남편인 휘틀럼 총리가 모든 수당을 포함해 연간 5만6,000달러의 ‘Prime Minister 급여’를 받을 때였다. 마가렛 휘틀럼 여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vultures(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 freeloaders(남에게 빌붙어 먹고 사는 이들), intruders(불청객)’라고 받아쳤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합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이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스타일이다.

조디 레이튼 여사는 그녀 자신의 경력과 인생이 있다는 사실에 시선을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는(대중의 관심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정점이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금융 서비스 전문가로 일해 왔다.

▶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질병예방의 열쇠

‘장수인자 (長壽因子)’ HDL에 주목하다!



◆ 세계 5대 장수촌 바마(巴馬)의 비밀, HDL콜레스테롤이 높다

세계 5대 장수촌으로 불리는 중국 광시(廣西) 바마(巴馬) 마을은 중국에서도 100세이상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10만 명당 100세 인구가 31명에 달한다. 바마 마을의 튀메이전(羅美珍) 할머니는 12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세계 최고령자였다. 광시대학교 연구팀은 장수 가족력을 가진 312명과 대조군 298명을 대상으로 장수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APOE단백질과 혈중 지질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APOE단백질 수치에서는 두 그룹 간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장수 가족력을 가진 참가자들의 평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61.9mg/dL, 대조군은 42.5mg/dL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수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 중 60세 이상의 평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67.5mg/dL로 매우 높았다. 높은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어 건강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 100세 장수인의 HDL 비율은 32%로 매우 높아

총콜레스테롤이 높아도 HDL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2010년 발표된 백세장수인 연구에서 장수인들은 총콜레스테롤이 270mg/dL로 높았지만, HDL-콜레스테롤 역시 84mg/dL로 매우 높았다. HDL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남자 40, 여자 50mg/dL이다. 콜레스테롤의 양이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속에 들어있는 HDL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대비 HDL의 비율이 약 25%정도이다. 그런데 100세 이상을 살고 있는 장수인들의 경우 HDL의 비율이 약 32%로 높았으며, 올림픽 선수들은 38%가 넘는 경우도 있다. 동맥경화 예방은 물론, 뛰어난 항염증·항산화 작용들을 하는 HDL의

유익한 기능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 HDL --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예방

HDL의 항산화 능력은 혈액 내에서 주로 LDL의 산화를 막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등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혈관확장 및 항혈전효과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실제로 일본인 150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DL이 높아질수록(20-99mg/dL) 고혈압 발병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인 2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HDL콜레스테롤 수치 35mg/dL미만을 기준으로 35-44mg/dL일 때 관상동맥위험은 21% 더 낮아졌고, 60mg/dL이상일 때 관상동맥위험은 49%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HDL - 치매 예방

치매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HDL의 치매예방 효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에서 19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중년에 HDL수치가 60mg/dL, 70mg/dL이상이었다는 사람들은 노년에 경도인지장애 발병 확률이 각각 20%와 50% 감소했으며, 중년기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50mg/dL 이상일 때 노년기 치매 발병률이 62%~65%까지 낮아졌다. HDL은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혈관성치매(15%)와 알츠하이머(70%)치매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다. HDL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 뇌졸중을 예방함으로써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연결되는 혈관성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HDL은 뉴런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Aβ)의 생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응집되거나 뇌에 쌓이는 것을 막고 뇌에서 생성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레이델 폴리코사놀, 장수인자 HDL의 품질

(항산화·항당화·항염증) 강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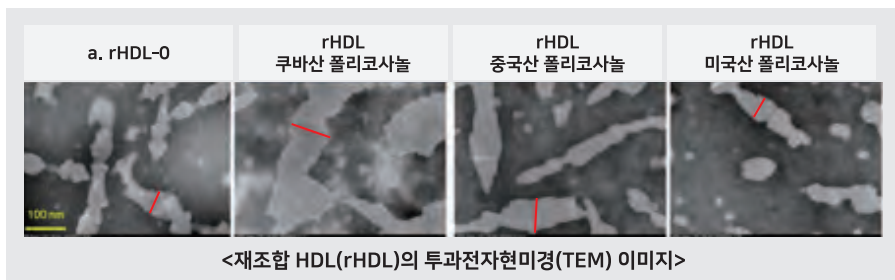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효능이 미국산·중국산보다 더 뛰어나

레이델 폴리코사놀(쿠바산)이 미국산과 중국산에 비해 고밀도지단백질 (HDL)의 품질을 더 크게 향상시킨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학계와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HDL은 혈관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운반체이며, 세계1위의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HDL은 '장수인자' 라고도 불린다. HDL의 양이 많을수록, HDL의 품질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는 더 높아진다. HDL 수치를 높여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폴리코사놀이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나 쌀겨, 밀랍 등의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 정제되는데, 원료 및 원산지에 따라 성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별 폴리코사놀은 원료의 색깔과 질감이 다르고, 지방족 알코올의 평균분자량이 다르며 (쿠바산 418, 중국산 442, 미국산 419), 성분조성도 일반인이 언뜻 보기에는 유사해도,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델연구원 조경현 연구원장은 미국산(사탕수수), 중국산(쌀겨), 쿠바산(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의 항산화, 항당화, 항염증 효과를 비교했을 때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해당 논문은 SCI국제학술지인 Molecules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원산지별 폴리코사놀을 HDL로 재조합하여 재조합HDL (rHDL)을 만들고 염증이 유발된 제브라피쉬 배아와 성체를 이용해 다양한 효능을 확인했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rHDL의 크기, 항당화, 항산화 능력 가장 커



<재조합 HDL(rHDL)의 투과전자현미경(TEM) 이미지>

HDL은 입자가 크고 모양이 둥글고 뚜렷할수록 품질이 우수하며, HDL의 품질이 우수할수록 콜레스테롤 배출 능력과 항당화, 항산화, 항염증 기능도 높아진다. 각각의 폴리코사놀로 재조합된 HDL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쿠바산 폴리코사놀 재조합 HDL의 지름은 약 83 nm로 중국산과 미국산에 비해 1.6배와 1.3배 더 컸다. 또한,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재조합 HDL은 중국산과 미국산 보다 apoA-I의 당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약 2.7배, apoA-I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 1.4배 각각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poA-I은 HDL

의 주요구성 단백질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의 배출능력 및 HDL의 항(抗)염증, 항(抗)죽상동맥경화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poA-I은 당(糖)에 의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HDL이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apoA-I의 당화를 억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결과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HDL의 당화를 억제하고 혈당이 높은 상황에서 apoA-I이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당뇨 억제 활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쿠바산 폴리코사놀 재조합 HDL이 LDL의 산화를 억제하는 가장 높은 항산화 능력을 나타냈다. LDL의 산화를 막거나 억제하는 것은 HDL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산화된 LDL은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을 쌓아 혈관을 좁아지고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HDL은 LDL의 산화를 억제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한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항염증 능력 가장 높아

HDL의 항염증능력에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염증을 유발하는 당화산물의 하나인 카르복실 메틸 라이신 (CML)을 제브라피쉬 배아에 미세주입 하여 기형과 사멸을 유발하고, 각각의 폴리코사놀 재조합 HDL을 공동 주입하여 24 시간동안 생존률을 확인했을 때 쿠바산 폴리코사놀 그룹의 생존률은 약 81%로 가장 높았고 중국산과 미국산 폴리코사놀은 각각 61%와 59%를 기록했다. 또한, 쿠바산 폴리코사놀 그룹에서 배아의 발달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기형 발생이 가장 적고 정상적인 발달 모양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산과 미국산 폴리코사놀이 HDL의 품질 및 기능성 개선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과 달리,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HDL의 품질 및 기능성 개선 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지방족 알코올의 총량과 1-옥타코사놀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692 mg/g, 총량 ~70%), 중국산 폴리코사놀(PCO2)은 56 mg/g(~7.6%)으로 가장 낮은 옥타코사놀 함량을 보였다. 이러한 극적인 차이는 apoA-I과의 결합 및 rHDL의 입자 형성 능력, HDL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폴리코사놀은 원료 또는 원산지별로 유효성분의 조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성분의 차이는 HDL을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중국산, 미국산 원료에 비해 재조합 HDL의 기능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내 '장수인자 HDL'의 구조와 기능이 가장 우수하게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의 그림은 본 논문의 내용을 압축한 Graphical Abstract으로 학술지에 논문 전체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23면에서 이어받음

제26대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의 부인 테레스 레인(Therese Rein)은 헤이든 여사와 유사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러드 총리 재임 시절(2007년~2010년, 2013년 6월~2013년 9월), 이전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해 상당한 부를 쌓은 최초의 총리 배우자였다. 국제 고용서비스 회사를 설립해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편이 선거에 승리해 총리에 취임하자 ‘정치권력(남편)과 비즈니스(아내)’ 사이의 이해상충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자 호주 사업체의 매각을 결정하기도 했다.

레인 여사처럼 오랫동안 사업가로 일해 온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제28대 총리, 2013년~2015년)의 부인 마가렛 애보트(Margaret Abbott)여사는 남편이 총리가 된 후에도 시드니 차일드케어 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남았다. 남편이 캔버라 관저에 있을 때, 그녀는 딸들과 함께 시드니의 자택에서 지냈다.

루시 턴블 여사, 당당하게 ‘Stepford Wife’ 거부

그녀는 지난해 한 미디어 인터뷰에서 남편과 함께 The Lodge에 머물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인의 배우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징집병과도 같다”면서 “남편의 조력자가 되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려 했지만 현실이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았고, 딸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보트의 뒤를 이은 말콤 턴블(Malcolm Bligh Turnbull. 제 29대, 2015년~2018년) 총리의 부인 루시 턴블(Lucy Turnbull) 여사는 남편이 최고 권력을 갖기 이전부터 인상적인 캐리어를 쌓아왔다.

변호사, 여성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또 2003년까지 4년간 시드니 시(City of Sydney) 부시장 및 이후 1년 여(2004년까지) 시장

으로 재임하는 등 정치 분야에서도 경력을 만들었다.

루시 턴블 여사가 일찌감치 “우리(여성)는 더 이상 ‘Stepford Wives’ (사회 통념과 남편의 의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순종적 아내들을 지칭)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여성임을 분명히 한 일은 여성계에서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다. 그런 부인과 달리 말콤 턴블 총리는 “내가 ‘나’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루시와 나’에 대해 훨씬 더 명료한 감각을 갖고 있다”(a much clearer sense of ‘Lucy and me’ than I do of ‘me’)고 고백, 자신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턴블 다음에 총리 자리를 차지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제30대 총리, 2018년~2022년 5월)의 부인 제니 모리슨(Jenny Morrison) 여사는 시드니 북부 소재 총리 관저 ‘Kirribilli House’의 안주인으로 남았다. 그녀는 총리 영부인이라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두 딸은 부부의 자택이 있던 시드니 남부 서덜랜드 지역(Sutherland Shire)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차로 통학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폴 키팅(Paul Keating. 제24대 총리, 1991년~1996년) 총리가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열정에 가려진 부인 애니타 키팅(Annita Keating) 여사는 영부인으로서의 노출보다는 네 자녀에 대한 헌신, 예술기관 및 무용단 후원, 개인적 취미인 사진에 만족하며 지낸 사람이다.

그녀는 키팅 총리의 정치 경력, 그리고 23년간의 결혼생활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예술가로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았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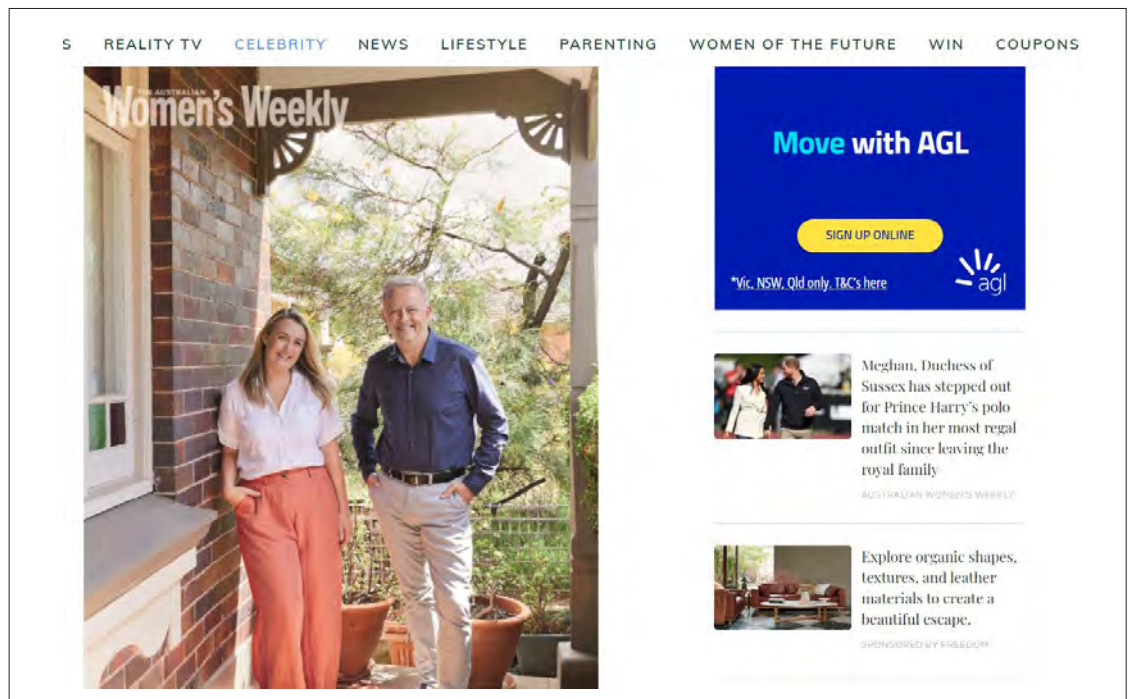
케빈 러드 총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뒤 다음 선거에서도 집권에 성공했던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제 27대 총리, 2010년~2013년) 총리는 캔버라의 The Lodge에 거주했으며, 당시 파트너인 미용사 팀 매티슨(Timothy

Raymond Mathieson)이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둘의 관계는 매티슨이 전 파트너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7,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2023년)되기 2년 전(2021년)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키팅 총리에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된 존 하워드(John Howard. 제25대 총리, 1996년~2007년) 총리의 부인 자넷 하워드(Janette Howard) 여사는



말콤 프레이저(Malcolm Fraser) 총리의 부인이었던 태미 프레이저(Tamie Fraser) 여사는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몸이 쇠약했던 남편을 대신해 선거 캠페인에 직접 뛰어들이기도 했다. 그녀의 활동과 전략은 자유당 선거 전략가들도 인정하 바 있다. 사진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헤이든 여사는 연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내 일은 내 하루의 일과에 집중하고 또 앤서니가 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식적으로 호주의 퍼스트 레이디가 예정된 그녀가 어떤 행보를 보일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진은 ‘The Australian Women's Weekly’ 매거진과의 공동 인터뷰 당시 이미지. 사진 : Australian Women's Weekly 인터넷 페이지 캡처

남편의 12년 재임 기간 동안 Kirribilli House에 거주하면서 10대의 세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냈다.

그녀는 공식적 행사, 캠페인 등에서 남편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공공 영역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계 소식통들에 의하면 자넷 하워드 여사는 ‘왕좌 뒤에 있는 진정한 권력자로서의 신뢰’를 보여주었고 예리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헤이든 여사, “영부인으로서의 이력,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역대 총리의 부인들 가운데 ‘오늘날 최고 정치 지도자의 파트너 역할을 정의했다’고 평가받는 마가렛 휘틀럼 여사는 자넷 하워드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The Lodge를 떠난 지 30년 후, 휘틀럼 여사는 자넷 하워드 여사에 대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에 (영부인으로서) 영 아니다”(Janette Howard “is useless in terms of how little she really gives the community”라고 썼다.

마가렛 휘틀럼 여사는 ‘National Trust of Australia’ (호주 원주민, 자연 및 역사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단체의 국가 최고 기구)에 의해 ‘국보’라 할 수 있는, ‘National Treasures’로 선언된 두 명의 총리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다.

다른 한 명은 헤이즐 호크(Hazel Hawke. 제23대 Bob Hawke 총리의 부인) 여사이다. 두 영부인 모두 남편(총리)의 경력에 단순히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으며, 또 성공했다. 헤이즐 호크 여사는 남편이 수없이 부정한 일(infidelities)을 저지를 때

에도 남편 곁을 지켰지만 밥 호크는 총리직이 끝난 뒤 부인 곁을 떠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정치부 토니 라이트(Tony Wright) 부국장은 이 논평에서 “조디 헤이든 여사가 공식적으로 알바니스 총리와 결혼을 하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면, 그녀에게는 새로 배워야 할 이력이 부족한 편은 아니다”고 평하면서 “아마도 그녀는 경력의 대부분을 The Lodge의 한 구석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영부인으로서 마가렛 휘틀럼 여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영상미디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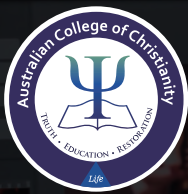
학생모집

시를 활용한 비디오 제작, 웹툰 제작, 음성 녹음 등의 최신 트렌드를 영상미디어학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년 혹은 4년, 5년 6개월 비자 가능

로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학비 •풍부한 임상 경험 •슈퍼비전(20년 경험) 	유학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4년비자 •주1일 or 2일 수업 •매텀 수시모집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 교민들을 위한 장학금과 사역자 장학금 추가 적용	
전과정 온라인 가능	CHC81015 상담학과 준석사 CHC51015 상담학과 준학사 CHC43315 정신건강 Cert IV* CHC42315 교목과 목회돌봄* CHC43015 노인돌봄Cert IV* SIS50321 스포츠 준학사 SIS40321 스포츠코칭 Cert IV*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Diploma Of Counselling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Certificate IV In Chaplaincy And Pastoral Care*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Diploma Of Sport Certificate IV In Sport Coaching*	10741NAT 신학 Cert III* 10742NAT 신학 Cert IV* 10743NAT 신학 준학사 10744NAT 신학 고급 준학사 CUA51020 영상미디어 준학사 CUA31020 영상미디어 Cert III* CUA41220 영상미디어 Cert IV*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Diploma of Screen and Media Certificate III in Screen and Media* Certificate IV in Screen and Media*	

*표시는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한 학과입니다. 상위과정은 어스터디 가능 코스와 더불어 degree로 하시면 많은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공부 가능합니다.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 Truth Education Restoration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호주기독교대학교 RTO 40892 CRICOS 03461B

어스터디 가능
(상담필요)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www.accu.edu.au, info@accu.edu.au

캠 퍼 스 시드니/캔버라
 멜번/브리즈번



ACC 협력기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호주 한인 생명의전화

+61) 2 9858 5900
 24시 무료상담

info@koreanlifeline.org
 www.koreanlifeline.org

생명의 전화는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기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의뢰처를 연결해 드립니다. 호주 전역 24시간 가능. *상담원 모집 문의 : +61) 430 045 078



원앤원(One&One)
 심리상담연구소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info@accu.edu.au

탁월한 심리 상담연구소 원앤원(One&One)에서는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각종 정신건강, 심리문제 및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관련 심리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Charis College Ministry

+61) 402 140 905

ccm@accu.edu.au

선교지에 상담학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전액 장학금 교육을 실시해서 호주 상담학 학위를 수여하여 기독교 상담자를 양성하여 선교 국가에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일본, 몽골, 탈북민, 태국, 말레이시아 시작)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흉터

점을 뺐다. 오른쪽 입 옆에 볼펜을 짚어 놓은 듯한 작은 점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은 조금 더 자랐고 짙어졌다. 파운데이션으로도 커버가 안 되어 외출할 때마다 거슬렸다. 한국방문 길에 병원을 찾았다. 점 위에 마취제를 바르고 레이저 시술 하던 의사가 멈추고 말했다. “생각보다 깊어서 한 번으로 안 되겠어요.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오셔야 해요.” 점을 뺐 곳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병원 문을 열고 나오자 겨울바람이 매섭다. 살을 찌르는 듯한 칼바람을 등에 지고 명동역으로 향했다. 서서히 마취가 풀리면서 상처가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안산행 전철이 다가왔다. 친구 경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경이 생각을 하자 점을 뺐 자리의 통증이 명치로 내려온다. 설레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다. 늦둥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경이가 아프다. 늘 긍정적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였다. 경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말이 오가면서부터였다. 엄마의 결사반대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시할머니와 시부모, 그리고 출가 전인 두 동생이 있는 집 만며느리로 곱게 키운 막내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엄마는 눈물로 보냈다. 점점 쌓여가는 불만은 날 선 칼날이 되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찌러대곤 했다. 마음이 피폐해진 경이는 몸져누운 엄마를 두고 끝내 결혼했다. 시집살이는 엄마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이는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냈다. 모두가 대견하다며 그녀를 칭찬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바쁜 탓에 연락이 뜸했다. 나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늘 마음으로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기도로 대신하곤 했다. 어쩌다 전화 통화를 해도 길게 할 수가 없었다. 점점 통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시간은 손살같이 날아갔다. 그녀의 시동생들은 결혼했고 시할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큰 탈 없이 지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던

시어머니가 돌변한 것이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던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 밖에서는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집에서는 다르게 대하니 혼란스러웠다. 회사 일로 지쳐서 돌아오면 김치 만들 재료가 부엌 가득 펼쳐져 있었다. 하루가 멀다고 종류별로 김치거리를 사다 놓았다. 아무리 청소해도 지저분하다 트집을 잡고 어쩌다 방에서 쉬고 있으면 거실에서 얼마나 털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전쟁 같은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경이는 마음의 병이 깊어 갔다. 그걸 알아채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날도 아침 밥상을 차리고 출근하려는 순간 경이가 퍽! 그 자리에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링겔 바늘을 팔에 꽂은 채 그녀는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 의사는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아요?’ 나지막이 물었다. 의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가슴 저 밑에서 뭔가 추욱 올라와 목젓을 타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천천히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의사의 눈빛만으로도 다소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경이는 회사가 걱정되었다. 문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의사의 호출에 안으로 들어왔다. 회사에는 연락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퐁퐁 부은 눈과 눈물로 얼룩진 경이의 얼굴을 본 남편은 연거푸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의 눈에 이제야 아내의 아픈 모습이 제대로 보였다. 한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 했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숨기고 살아낸 인고의 시간이 육신거렸다.

‘다음 정거장은 안산, 안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어느새 전철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녀를 만나기 십분 전, 가슴이 콩닥콩닥 뒹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어찌 물어야 할지, 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역을 빠져나오자

서울에서 맞았던 바람보다 더 차갑다. 살갓이 에이는듯하다. 점을 뺐 자리가 찌릿 찌릿하게 통증이 올라온다. 바람을 피할 겨를도 없이 저쪽에서 경이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그렇그렇 눈에 맺힌 눈물을 싹핏 보았지만 모르는 척 경이 차에 올랐다. 내일은 연차를 내서 회사에 안 가도 되고, 남편의 도움으로 외박도 허락되었다며 환하게 웃는다. 이미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한정식을 맛있게 먹고 호텔로 향했다. 여전히 씨름 중이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얘기하며 버텨낼 근력이 생겼다고 했다. 그렇다고 다 지나갔다는 말은 아니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경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릴 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쏟아지는 눈물만 연신 훔쳐냈다. 우리는 간간이 들리는 차 소리를 들으며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

어느새 점을 뺐 자리는 희미해졌다. 두 번의 시술 후 진피층 깊은 곳에서부터 새 살이 올라왔다. 흐릿하게 흉터는 아직 남아 있지만 파운데이션으로 커버가 되니 괜찮다. 점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서 그새 잊고 있던 경이를 생각한다. 피부에 난 작은 상처도 이렇게 아프고 아물 시간이 필요한데 내 친구 경이의 마음속에 깊이 파인 상처는 오죽했을까. 얼마나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할까. 깊은 상처가 흉터로 아물어지고, 그 흉터마저 희미해져 화장기 없는 얼굴과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본다.



최지나

2010년 문학시대 신인상 등단,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정치적 수사 표적’ 우려... ‘Group of Eight’ 대학들도 더딘 학생비자 처리에 불만



지난해 연방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전략 중 하나로 국제학생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자발급 조치가 발표된 이후 호주 각 고등교육 기관 입학에 대해 신청한 학생비자 발급이 기록적인 수로 거부되거나 발급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학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 Unsplash / Brett Jordan

“...만약 광업 부문이 3차 교육기관과 비슷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엄청난 항의가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감축의 일환으로 국제학생 비자 승인을 강화하면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유명대학 핵심 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놓은 글이 대학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국제학생 입학을 담당하는 브렌던 러트위슈(Brendon Lutwyche) 부국장은 자칭 ‘정치적 소셜미디어 성명’이라 밝힌 글에서 유학생 비자승인 강화를 호주의 광업 부문 수출 규제에 비유하며 연방정부가 비자 승인을 극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을 ‘은밀한 이민자 수용 제한’(imposing a migration cap by stealth)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유학생들이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 공식적인 공개 토론과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적 발언으로, 이 용어 자체는 종종 까다롭거나 부정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위슈 부국장의 이 같은 의견은 사실상 호주 8개 주요 대학 연합인 ‘Group of Eight’ 이 정부의 이민제한 문제에 개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연방정부는 호주로 유입되는 순이주를 줄이고 고등교육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업훈련 부문 및 관련 사립 교육기관 입학을 신청하는 국제학생에 대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내놓은 이민전략에 대해 호주 주요 대학들은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제는 내부의 학생비자 접근방식이 “교육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러트위슈 부국장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순수하게 학업을 위해 호주로 오는 국제학생들이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제때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LinkedIn 게시물에서 러트위슈 부국장은 “아니면 일부 논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민 수용을 제한하는 것인가? 오직 정부만이 답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만약) 정부가 글래드스톤 항구(Gladstone port, QLD 주 최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철광석 운반선 3척에 대해 출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Rio Tinto 사(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철광석 회사)에 통보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할 수 있을까? (Rio Tinto 사는) 엄청난 (그리고 정당한)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 부문(교육계)과 그 이상 모든 수준에서 더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는데, 유학생을 문제로 삼는 정치적 수사와 사회 논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위슈 부국장의 발언

이후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국제학생처 팀 필드(Tim Field) 처장도 동 학교 입학 신청한 유학생들이 비자처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썼다.

필드 처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유학 대행업체를 단속하고 ‘고등교육에서의 착취와 부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수사(rhetoric)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미래 학업을 위해 호주를 선택한 순수한 의도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혼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매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국제학생처 데이빗 해리슨(David Harrison) 처장 또한 “순수 의도의 유학생의 미래에 부당한 결점(black mark)으로 고통을 줄 것”이라는 말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찰스 스투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 유학생 입학 모집 책임자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 국장도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비자 정책에 불평을 표했다.

지난해 9월까지 1년 사이 호주로 입국한 이민자는 51만이 넘는 기록적 수치였다.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순해외 이주를 25만 명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유학생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거부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학생비자 승인은 신청자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Group of Eight’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는 상위권 대학들도 (정부의) 학생비자 처리 지연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결책을 찾고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이달 셋째 주, 해외 이민자의 호주 유입을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정부 목표를 분명히 하며 “학생비자 신청에 적절한 ‘정직성’을 적용하는 것은 이(정부 목표)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이 언급한 ‘정직성 문제’는 유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저임금으로 일하려는(오닐 장관은 이를 ‘using education as a back door for low-paid work’라고 표현했다) 의도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제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히려는 목적으로 예비 유학생의 영어능력 평가 및 재정적 요구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해 학생비자를 받아내려는 유학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새 이민전략이 발표되었을 당시, ‘(순이민을 감축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제학생 수를 제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닐 장관은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장관은 “우리가 여기(새 이민전략)에 세운 조치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적시에 파악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3% 대에 머물던 실업률, 1월 들어 4% 대로... 고용의 황금시대, 끝나는 것일까



2023년까지 2년간 4% 미만의 실업률을 이어오던 NSW 주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NSW는 호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 수치를 보였으나 ABS의 1월 실업률 집계 결과 전국 평균과 같은 4.1%로 빠르게 상승, 보다 이른 시간에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처

지난 2년여 기간은 NSW 주 일자의 황금시대(golden era)였다. 이 시기, NSW 주 실업률은 3~4%를 맴돌았으며 지난해 6월 실업률은 NSW 역사상 최저 수준인 2.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전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2022년, 인플레이션 수치가 급등하고, 5월부터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호주 경제를 선도해 온 NSW 주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NSW 주는 호주 각 주 및 테리토리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2월 15일(목) 통계청(ABS) 데이터에 따르면 NSW 주 실업률은 3.4%에서 4.1%가 됐다. 이는 불과 한 달 사이, 이례적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올 1월, NSW 주 실업자는 3만 명이 증가한 18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NSW 주가 팬데믹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 중이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 수이다.

ABS 집계를 보면, 지난달(1월) 호주 실업률은 NSW 주와 같은 수준인 4.1%로 높아졌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둔화된 진원이 NSW라는 분석이다. NSW 주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3만3,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가운데 2만 2,000개는 여성 일자리였다. 지난해 5월, 2.8%의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던 NSW '남성 실업률'은 현재 전국 평균보다 높은 4.2%로 치솟았다.

올 1월 일자리 둔화의 심각성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지난해 실시된 한 기업 조사를 보면, 고용시장 여건은 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발표된 'Business NSW'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5곳 중 1곳은 향후 3개월 내 직원 수를 줄일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전국 실업률이 3.6%에서 4.1%로 상승한 것은 불과 4개월 만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0.1%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어오던 중앙은행(RBA)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 호주 공식 금리를 12년 만의 최고치인 4.35%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일자리 보고서는 RBA의 공식 이자율 인상이 현재 NSW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준금리 상승 여파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해 단행된 인상 결정은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드니의 경우 공식 이자율 인상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시드니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은 가계부채(담보대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NSW 주의 평균 모기지(mortgage) 대출은 78만5,000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캔버라(Canberra, ACT)가 62만2,000달러로 뒤를 잇는다.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RBA 총재는 중앙은행 이사회가 '고용 증가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수

치를 완화하는 필요성'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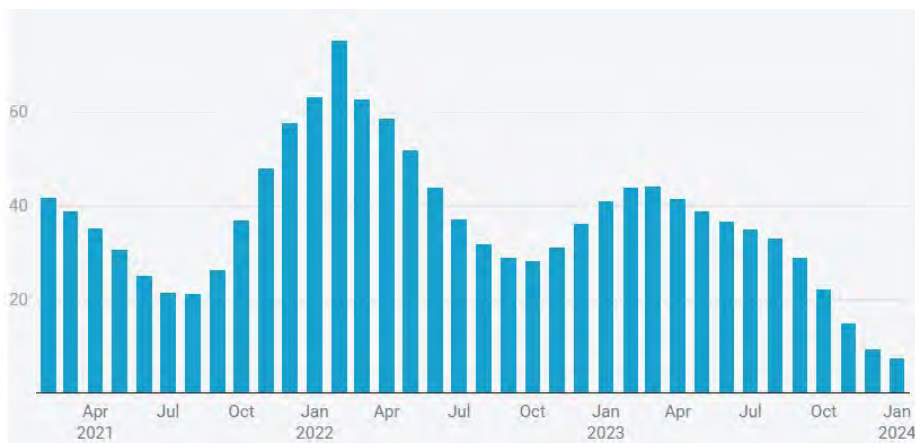
하지만 1월 고용 수치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현재 호주 인플레이션 수치는 4.1%로, 여전히 RBA의 목표범위인 2~3%를 훨씬 웃돈다. 이달 초, 불록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하데,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RBA가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듯, 1월 실업률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9월의 NSW 주 예산안(NSW 주 예산 계획은 매년 6월 둘째 주 수요일 나오지만 지난해의 경우 주 선거와 집권당이 바뀐에 따라 9개월 늦게 발표했다)은 2024년 6월까지 NSW 주 실업률이 연간 3.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 비율은 이보다 크게 높다.

경제학자들은 "RBA가 특히 호주 최대 고용시장인 NSW 주의 고용 둔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손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계속 증가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포함된다. 공식 이자율이 장기간 너무 높게 유지되는 경우 실업률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3년 사이, 월별 일자리 생성 수(단위: 1천)를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28면에서 이어받음



정부 방침에 따라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국제학생들은 보다 엄격한 영어능력, 재정 상황, 이전에 학생이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사진은 호주의 한 대학 캠퍼스. 사진: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처

현재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학업 실적이 좋은 대학들에게는 국제학생 비자 승인에 우선순위를 주고, 문제가 있는 학교는 가장 낮은 순위를 두라'는 내무부 장관의 서면 지시('Ministerial Direction 107')이다. 즉 '정부의 학생비자 승인에 있어 유학생 실적이 좋은 교육기관 입학 신청자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비자발급 거부 비율이

높았거나 비자조건 위반 사례가 많았던 교육기관 입학 신청자는 비자심사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비자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드니 기반의 국제교육 대행사 'Global Reach'의 라비 싱(Ravi Singh) 대표는 "대학과 같은 비정치 기관이 이처럼 명확하게 정부에 반대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면서 "국제학생들은 호주의 엄격한 학생비자 시스템 때문에 학업 목적지로서의 호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들(학생비자를 신청한 국제학생)은 이제 수수료만 잃는 게 아니라 그들 인생의 1년을 허비하게 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CB 시의회, 전 세계 60여 개 국가 출신 거주민 1,050명에 시민권 수여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는 지난 2월21일(수) 이 지역에 거주해 온 1,050명에게 시민권을 수여하고 이들을 환영했다. 사진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티틸라드 아데데지(Titilade Adedeji, 사진 왼쪽)씨와 그녀의 가족들. 사진: CB City 제공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이하 'CB city')에 거주해 온 1천 명 이상의 거주민이 호주를 새로운 조국으로 부르게 됐다.

CB City는 지난 2월 21일(수), 뱅스타운 소재 평선센터 'Highline Venue' 에서 시민권 수여식을 갖고 전 세계 60개 국가 출신으로 CB City에 거주해 온 1,050명에게 시민권을 수여하고 이들을 환영했다.

이번에 시민권을 갖게 된 이민자 가운데는 나이지리아 태생의 티틸라드 아데데지(Titilade Adedeji)씨와 그녀의 남편 및 세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아데데지씨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또 어린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호주로 건너왔다. 도착한 뒤 피터삼(Petersham)에 살던 그녀는 2017년 TAFE NSW - Bankstown에서 공부하고자 뱅스타운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뱅스타운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곳에 눌러앉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특히 아이들이 이 지역을 좋아했고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들도 만났다"며 "지난해에는 이곳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CB City의 빌랄 엘-하예크(Bilal El-Hayek) 시장은 우리 시의 새로운 시민을 환영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새로운 시민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는 더욱 부유해지고 강해진다"면서 "나는 그들이 우리 시를 위한 개인적, 집단적 기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데데지씨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전공을 바꾸어 지금은 간호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간호사로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 "현재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는 아데데지씨는 "올해 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 공인 간호사로 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데데지씨는 "진정한 호주인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주 시민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으로,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Korean Community's & Best Quality Newspaper

"한국신문은 호주한인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장 이윤신 Peter Lee
- 편집인 김인구
- 편집국장 김지환 Kevin Kim
- 디자인 Emily Cha
- 관리 이선옥

카카오톡 : Koreanherald
페이스북 : 한국신문

T. (02) 9789 3300
E. herald@koreanherald.com.au
W. www.koreanherald.com.au
A. 105/118 Great North Rd
Five Dock NSW 2046

저작권자(©)한국신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인직영, 한인전용 한솔장례식장

"장례 기간중 입관식, 장례식, 빈소운영, 조문객 접대등 모든 절차를 준비된 한곳의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식장 - 장례식, 입관식 & 추모식 진행 - 70명 + 수용 규모
2. 빈소 - 장례 기간중 조문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전통식 공간
3. 조문객 접대실 - 장례 기간중 방문하신 조문객 접대 - 80명 동시 수용 규모

4. 부역 - 조문객 접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5. 유가족 휴게실 - 빈소 운영중 필요에 따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 빈소



* 장례식/추도식/입관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식장 (70명 수용)



* 조문객 접대실 X 2 * 유가족 휴게실



* 장례식장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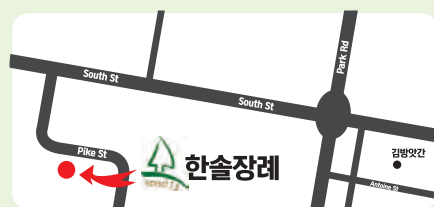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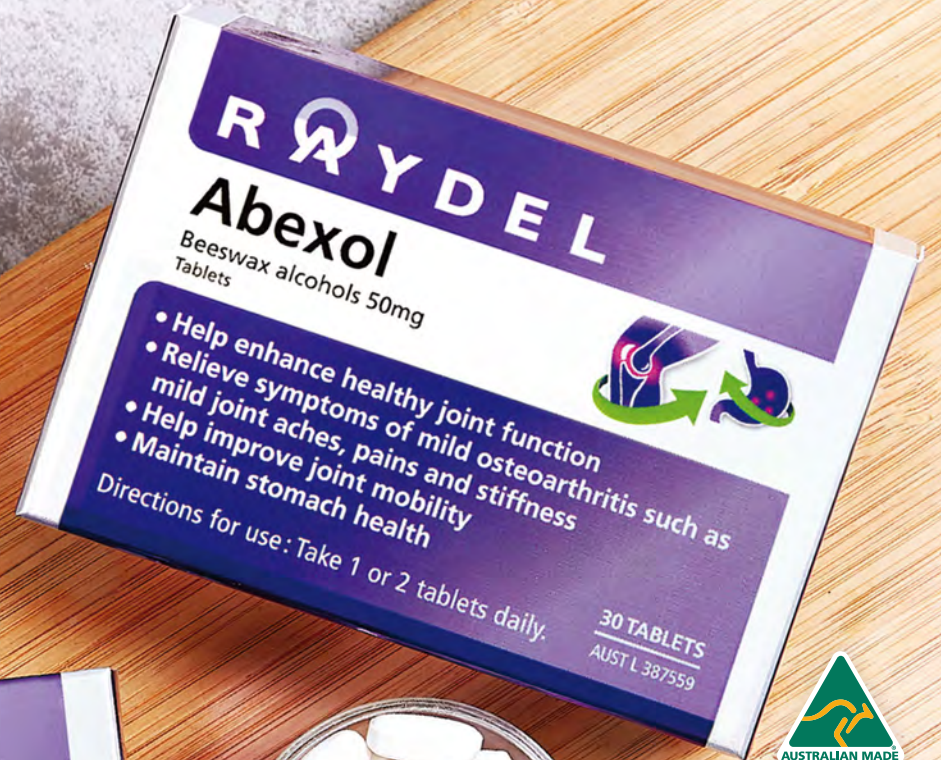
한솔장례 Hansol Funeral Services P/L

문의: 02 9858 5547 / 0404 116 758 (주 7일 / 24시간)

주소: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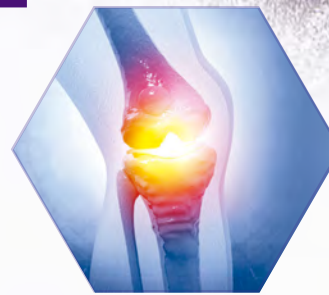
info@hansolfs.com.au / www.hansolfs.com.au





관절건강을 위한 레이델 아벡솔

- ✓ 건강한 관절 기능 강화에 도움
- ✓ 관절통증, 뻣뻣함, 부기 등 경미한 골관절염 증상 완화
- ✓ 관절 가동성 향상에 도움
- ✓ 위(胃) 건강 유지



경증 골관절염(OA) 경미한 관절 통증, 뻣뻣함, 관절 운동 장애와 같은 증상이 특징입니다. 경미한 골관절염을 관리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레이델 아벡솔은 6가지 고분자량 알코올의 혼합물인 비즈왁스알코올들 5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경미한 골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건강을 유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합니다.

김명민



레이델 홍보대사 배우 김명민

Always read the label and follow the directions for use.